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친환경 환경부

<나의 경기도>는 환경부가 인증한
친환경 용지로 만듭니다.

나의 경기도

2024 FEBRUARY

나의 경기도

2024

2월

설에 가족과 함께 즐기기 좋은 경기도 전통문화 명소
도민 목소리 담은 경기도의 손에 잡히는 인구 정책
전영수 한양대 교수, 지역 살리는 로컬리즘이 인구 위기 해법
허영호의 경기옛길 덕풍천길 탐방

발 간 등 록 번 호
71-6410000-000841-06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CONTENTS

문자 음성 변환 코드, 보이스아이

vol.176
2024.02

04

기회 경기

4
아름다운 경기
지금이라 더 특별한
우리 것

12
기회의 경기
경기도의 미래를 위해
도민 목소리를 담았다
손에 잡히는 인구 정책

18
이로운 경기
공유자전거 요금 지원부터 학습 코칭까지
경기도 청소년을 위한 기회

20
경기 문화 예술인
매일매일 일상이 아름다운
최성우 목공예 작가

22
상생 경기
안전한 삶을 위한 스마트 웨어러블
세이프웨어

20

변화 경기

24
쉼이 있는 시(詩)간
새해 아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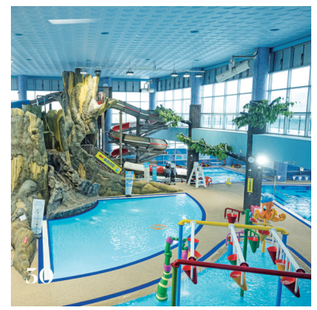
26
성장 문답
전영수 한양대학교 국제경영학 교수
지역 살리는 로컬리즘이 인구 위기 해법

30
로컬 in 경기
건강하고 맛있게! 평택 에코 투어

34
경기애(愛)
고향을 돕고 싶은
기부자들의 마음일 겁니다

36
경기에 물어봐
어르신들 건강하세요
몸과 마음 모두 돌보는
경기도 어르신 건강 관리

38
꿈꾸는 사진관
황혼의 멋진 만남, 인생은 아름다워!


30

일상 경기

40
경기옛길 탐방
조선왕조의 실록을 옮기던 길
봉화길 덕풍천길

44
경기 백년 식당
부대찌개의 전설
의정부 경원식당

48
건강 경기
새해 운동하기로 결심했다면?
'1530'으로 걷자!

50
안전 경기
해빙기라고 방심하지 마세요!
구조대원이 알려주는 해빙기 등산 시 주의점

52
이달의 놀력
메모하세요!
놓치면 아쉬운 2월의 문화생활

54
의회 인사이드

58
2월의 기회
경기도민을 위한 이달의 혜택

60
일JOB 꿈JOB

62
독자 이벤트

40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발행처 경기도
발행인 경기도지사 김동연
편집인 홍보기획관 이원일
제작부서 도민소통담당관
발행일 2024년 2월 1일

〈나의 경기도〉는 경기도가 무료로 발간하는 도정 소식지입니다. 본지의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 표시·상업적 이용 금지·변경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사진, 일러스트, 만화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지금이라 더 특별한 우리 것

글 이정은
사진 전재호, 경기관광공사

전통은 흘러가는 시간에 사람들의 정성스러운 마음이 더해져 완성된다. 그리고 그 마음은 변함없이 이어지다가 동시대적 문화로 돌아온다. 설 명절을 맞아 새롭게 즐겨보는 오늘의 전통문화.

아는 만큼 보이는 법

전통문화를 제대로 즐기려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곳이 제격이다. 경기도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의 도시'라고 할 만큼 많은 문화재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수원화성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320-2, 031-290-3600

고즈넉한 한옥에서의 하루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것 중 가장 지키기 어렵고 소중한 하나를 꼽으라면 바로 '집'이다. 한옥 마을이 반가운 이유다. 한옥의 뜨끈한 아랫목에 누워 꿀잠을 자고, 툇마루에 앉아 소복이 쌓인 눈을 감상하며 여유롭게 보내는 하루야말로 소소한 행복이 아닐까.

취옹예술관 경기도 가평군 상면 수목원로 300, 031-585-8649

www.gg.go.kr
나의 경기도

설 명절엔 우리 술 한잔

정월대보름 귀밝이술로 전통주만 한 것이 없다. 미각과 후각을 다채롭게 자극하는 깊은 맛과 향에 발품도 기껍다. 우리 술 한 잔 마시며 겨울의 낮과 밤을 채워본다. 그렇게 한두 잔 마시다 보면 사람도, 인생도 다시 보인다.

전통술박물관 산사원 경기도 포천시 화현면 화동로432번길 25, 031-531-9300

한국민속촌에 흐르는
지곡촌에 비친 목교 풍경입니다.

어쩌면 가장 한국적인

각 지방의 실제 가옥을 실물 그대로 이전, 복원한 조선 시대 마을은 살아 있는 전통 그 자체다. 농악, 줄타기, 전통 혼례 등 멋과 흥겨움이 가득한 공연이 수시로 열려 의미와 재미를 더한다. 또 추억의 그때 그 놀이 등 전통을 재해석해 개최하는 다양한 테마의 시즌 축제는 특별한 즐거움을 선사한다.

한국민속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민속촌로 90, 031-288-0000

대체 불가한 재미

강이나 호수가 두껍게 얼어붙으면 그야말로 신나는 얼음 놀이터가 된다. 그 옛날 명품이던 나무 썰매는 온데간데없고, 이제는 오리 썰매와 산타 썰매가 빙판 위를 누빈다. 조심조심 페달을 밟는 아빠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씽씽 달리는 아이들 얼굴엔 웃음이 한가득이다.

포천 백운계곡 동장군축제(2월 12일까지)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포화로 259 백운계곡관광단지, 031-536-9917
포천 산정호수 썰매축제(2월 12일까지)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산정호수로411번길 108, 0507-1409-6135

경기도의 미래를 위해 도민 목소리를 담았다 손에 잡히는 인구 정책

글 이선민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23년 3분기 기준 0.7명으로, 초저출생 인구 위기에 직면했다. 경기도는 실효성 없이 예산만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이 원하는 정책을 시행해야 문제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판단하에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인구톡톡 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지난해 6월 발족했다. 도민의 목소리 '톡(talk)'을 담아 '톡' 하고 나온 인구 문제 해결책을 정책화하고자 하는 도민 참여형 위원회다. 위원회는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구상을 구체화하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지속해서 담아내기 위한 시도로, 31개 시군 대표로 구성된 도민참여단 '아이원더'를 발족했다. 임신·출산, 육아, 초등 돌봄, 청년(결혼) 분야에서 목소리를 내는 아이원더를 비롯해 '경기도 아빠하이!', 기업 대표, 전문가 등 200명의 도민참여단이 함께 활동한 결과 실질적인 정책을 내놓을 수 있었다. 도는 앞으로도 도민의 목소리를 담은 인구 정책을 발굴해 작지만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Part 1 경기도형 인구 정책

도민과 함께 인구 위기에 대응한다

경기도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구 정책을 통해 도민과 함께 인구 절벽 문제에 대응해나가는 중이다.

임신·출산 분야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거주 요건 폐지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거주 요건(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시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경기도 거주)도 1월부터 폐지했다. 도는 시술 종류와 연령에 따라 회당 20만~110만 원의 난임 부부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에 전입하는 난임 가구의 시술 지연 문제가 해결됐다. 4월부터는 냉동 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회당 100만 원, 부부당 2회),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일부 시군 시범 사업으로 가임력 검진비 5만~10만 원) 등 2개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건강증진과 031-8030-3274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소득 기준 폐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 가정이 신생아 돌보기, 청소·세탁 등 가사 서비스 방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1월부터 소득 기준과 상관없이 출산 가정은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건강증진과 031-8030-3274

임신·출산에 필요한 의료비, 검사비 지원 소득 기준 폐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는 1인당 300만 원(본인 부담금의 90%)을,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는 미숙아 300만~1,000만 원과 선천성 이상아 500만 원을,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는 확진 검사비 최대 7만 원과 보청기 최대 262만 원을, 영유아 발달 정밀 검사비는 20만~40만 원을 소득 기준과 상관없이 지원한다.

건강증진과 031-8030-3274

위기임산부 안심상담 핫라인

예기치 않은 임신과 출산 등으로 고민하는 미혼모 등 위기에 놓인 임산부라면 누구나 24시간 익명으로 상담받을 수 있는 위기임산부 안심상담 핫라인(010-4257-7722)을 지난해 10월 개설해 운영 중이다.

가족다문화과 031-8008-3356

Tip

위기임산부 안심상담 핫라인 알아보기

위기임산부 안심상담 핫라인(010-4257-7722)은 예기치 않은 임신과 출산으로 고민하는 미혼모 등 위기에 놓인 임산부라면 누구나 24시간 익명으로 전화 통화나 누리 소통망을 통해 24시간 상담받을 수 있다. 전문 상담사의 초기 상담 후에는 진료비, 아이 돌봄, 법률 지원, 심리 치료 등을 연계한다. 지난해 10월 핫라인 개설 후 1월 16일 현재 63명과 상담했다.

육아·초등 돌봄 분야

초등 1학년 안심 돌봄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내에 운영 중인 돌봄교실이나 신규 설치하는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을 지원한다. 도는 내년 일부 시군을 대상으로 지역 내 모든 초등 1학년 안심 돌봄을 시범 운영한 뒤 전 시군으로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도내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아동 7,500명을 대상으로 방학 중 점심 급식비도 제공하기로 했다.

아동돌봄과 031-8008-3093

0세아 전용 어린이집

2008년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선보인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은 월령별 영아 발달에 맞는 프로그램과 이유식 등 맞춤형 보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출생 후 18개월까지 영아라면 입소 가능하며, 교사 대 영아 비율을 1:3에서 1:2(0세반)로, 또는 1:5에서 1:3(1세반)으로 축소했다. 2023년 335개소를 운영했고, 2026년까지 370개소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이용자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95.6%가 만족한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보육정책과 031-8008-4715

아동돌봄 핫라인 콜센터

아동돌봄 핫라인 콜센터를 운영해 도내 12세 이하 아동 긴급 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대상으로 주말, 평일 야간 돌봄과 연계해 상담부터 시설·가정 돌봄 서비스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현재 291개소가 운영 중인 다함께돌봄센터는 경기도 자체 예산을 추가로 지원해 2026년까지 500개소로 늘릴 계획이다.

아동돌봄과 031-8008-3911

www.99.go.kr 나의 경기도

조부모와 사회적 가족인 이웃에게 가족돌봄수당 지급

생후 24~48개월 이하 아동 돌봄에 참여하는 조부모와 사회적 가족인 이웃을 대상으로 월 30만~60만 원의 가족돌봄수당을 지급한다. (7월 이후 시행 예정)

아동돌봄과 031-8008-3922

둘째 아이 돌보미 지원

둘째아이 이상 출산 가정 중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한 가정에 소득에 상관없이 출산후 1년 이내 본인부담금 30만원을 지원한다.

가족다문화과 031-8008-3075

Tip

360° 돌봄

360°돌봄 알아보기

360°돌봄은 연령·소득과 무관하게 위기 상황에 놓인 모든 도민을 지원하는 '누구나 돌봄', 아이 돌봄이 필요한 가정이라면 언제라도 원하는 시간에 긴급 돌봄을 제공하는 '언제나 돌봄', 기관·가정, 야간·주말 어디서나 장애인 맞춤 돌봄을 제공하는 '어디나 돌봄' 등 3대 정책으로 이루어져 있다. 연령이나 소득과 상관없이 위기에 처한 모든 도민을 위한 전방위적 대책이다. 도는 360°돌봄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계획이다.

조직·기업 문화 확산

공공기관 육아휴직 환경 조성

공공 분야의 가족 친화 조직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직원의 육아휴직 시 정규직 충원을 위한 별도 정원제와 수시 채용 등이 시행되어야 한다. 올해부터는 난임 치료 휴가 등에 부부 동행 휴가를 전국 최초로 신설해 시행할 예정이다.

공공기관담당관 031-8008-4284, 2547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 사업 확대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을 현재 35개 사에서 내년부터 50개 사로 확대한다. 지원금도 현행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했다.

고용평등과 031-8030-3112

Tip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 알아보기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 사업은 직장 내 가족 친화적 직장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도내 가족친화 제도 모범 운영 기업을 발굴해 인증한 후 다양한 혜택(50종)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도는 인증 기업에 경기도지사 명의의 인증서와 인증 현판, 인증 마크를 수여한다.
또 중소기업 육성 자금 지원 시 우대금리 등 7개 기관에서 운영 중인 50개 항목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특히 신규 인증 중소기업은 최대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직원 건강관리 지원, 노동환경 개선, 가족친화 경영 교육 등에 필요한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Part 2 인구톡톡위원회 참여 후기

도민 의견이 정책으로 이어지다

인구톡톡위원회에 참여한 도민이 자신의 경험에 기반한 저출생 대안을 제안하고 정책으로 이어지는 것을 확인했다. 이들은 자신의 아이디어가 정책으로 탄생한 데 감동을 받았다고 입을 모았다.

하소연이 정책으로!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이유비(광명시)

16개월 된 쌍둥이를 키우는 워킹맘이에요. 위원회에서 도 관계자들과 직접 소통하면서 하소연이나 잡담으로 그칠 내용이 정책으로 이어지는 것이 신기했어요. 조부모 돌봄수당도 위원회에서 나온 의견이 반영된 것이거든요. 한 가지 바람은 다자녀 주차비 혜택을 31개 시군이 통합했으면 하는 거예요. 제가 광명시민이라 다른 시군에 갔을 때 안 된다는 말을 들은 경험이 있거든요. 이런 작은 부분부터 개선해나가는 데 한몫하고 싶습니다.

경기도 인구 정책 덕분에 둘째 계획을 세웠어요

옥지연(용인시)

돌이 된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이에요. 저는 위원회에 참여하면서 정책을 제안했다기보다 제가 받은 것이 많은 것 같아요. 도지사님과 위원회에서 만난 인연으로 아이와 함께 사진도 찍고 돌잔치 때 선물도 보내주셨거든요. 또 둘째 아이가 있는 가정의 대출이자 지원도 위원회를 통해서 나왔는데, 저에게 딱 맞는 정책이었어요. 저도 대출이자 부담 때문에 둘째를 포기했는데, 이 정책 덕분에 조만간 둘째를 낳을 계획이랍니다.

도민과 소통하는 경기도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허보현(평택시)

열 살, 여섯 살 두 딸을 키우는 전업주부로 평소 학교 운영위원장을 맡으며 초등 돌봄에 관심이 많았어요. 경기도 인구톡톡위원회는 저 같은 사람이 참여해서 함께 걱정하고 대책을 세우기 때문에 보람이 큽니다. 위기임산부 안심상담 핫라인처럼 위원회에서 나온 아이디어가 정책으로 탄생하는 것을 보면 뿌듯하기도 하고요.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경기도가 정말 도민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앞으로도 지금처럼 도민과 소통하는 경기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Info

경기도 인구톡톡위원회

경기도는 저출생 대응 정책을 구상하고 의사 결정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담고자 '인구톡톡위원회'를 만들었다. 위원회에 도민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하기 위해 도민참여단 '아이원더'도 선정했다. 아이원더가 되면 인구톡톡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해 의견을 제시하고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다.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경기도에 둔 19세 이상 도민 가운데 경기도 인구 정책에 관심이 많고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도민이면 참여할 수 있다.

공유자전거 요금 지원부터 학습 코칭까지

경기도 청소년을 위한 기회

글 이선민

경기도는 교통비 지원, 교복 무상 지급, 생리대 무상 지원 등 미래 꿈나무인 청소년이 겪을 수 있는 만일의 상황을 꼼꼼히 살펴 세심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올해 도는 생리대 지원 대상을 외국인으로 확대하고, 학교 밖 청소년과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경기도 청소년이 당당하게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다.

1년에 12만 원을 지원해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대중교통 이용 빈도는 높지만, 경제적으로 취약한 도내 청소년의 이동권 보장 및 교통 복지 확대를 위한 사업이다. 이번 교통비 지원은 2023년 상·하반기 최대 12만 원(반기별 최대 6만 원) 한도 내에서 경기버스(시내, 마을) 이용 실적, 경기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저녁 9시~다음 날 오전 7시까지는 1시간 이내) 서울·인천 버스나 지하철 등 환승 탑승 시 실사용액의 100%를 받을 수 있다. 단, 서울·인천 버스 또는 지하철, 경전철, 골드라인 등을 단독으로 이용하거나 공항버스, 시외버스, 열차(KTX, SRT, 새마을호, 무궁화호, 누리로), 택시 등의 이용 요금은 지원하지 않는다. 교통 지원금은 지역화폐로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2023년 교통카드로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한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거주 기간 제한 없음)하는 13~23세 청소년. 주민등록등본이 발급되지 않는 외국인이라도 국내거소등록증 혹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동거가족 사항 기재, 거주지 표기)를 1개월 내 발급받은 13~23세(경기도 거주자)라면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	1월 2일 오전 10시~ 2월 15일 오후 6시
신청 방법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홈페이지(www.gbuspb.kr)에서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
문의	1577-8459,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홈페이지(www.gbuspb.kr)

이용할 때마다 1,000원 지원받아요

청소년 공유자전거 이용 요금 지원사업

올해 1월 3일부터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범위가 공유자전거로 확대되었다. 이 사업은 '안산시 민생현장 맞손 토크' 현장에서 나온 중학생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다.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13~23세 청소년이 '똑타' 앱을 통해 연계된 공유자전거를 이용·결제하면 공유자전거 전체 이용 요금(기본+추가)에서 건당 1,000원을 즉시 할인받을 수 있다. 이용 요금이 1,000원 이하로 발생하면 요금 전액을 할인받는 셈이다.

지원 대상	경기도 거주 13세 이상 23세 이하 청소년
사업 기간	1월 3일부터
이용 방법	경기도 통합교통플랫폼 똑타 앱과 공유자전거 업체 앱 연계를 통해 공유자전거를 이용·결제하면 된다.
문의	광역교통정책과 031-8030-39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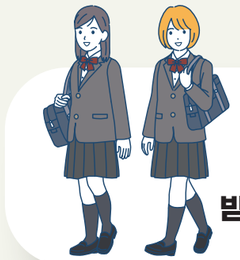
가정 밖 청소년의 미래를 응원해요

경기도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도는 가족 간 갈등, 학대 등으로 가정을 벗어난 '가정 밖 청소년'이 자립을 위한 자산을 형성해 더 나은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자립두배통장 사업을 통해 돕고 있다. 자립두배통장은 청소년 본인 저축액의 2배(월 최대 20만 원)를 도가 추가로 적립 지원해 전세 자금, 학자금, 취업 훈련, 창업, 결혼 등 목돈이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자산 형성을 돕는 사업으로, 6년 가입 유지 시 최대 2,000여만 원을 모을 수 있다. 청소년쉼터나 자립지원관에 1년 이상 입소한 15~24세 도내 가정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2024년 70명을 신규 모집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15~24세 가정 밖 청소년 70명
모집 기간	1월 24일~2월 23일
신청 방법	가입 신청서와 지원 검토서 등 신청 서류를 구비해 쉼터나 자립지원관에 신청하면 쉼터와 자립지원관이 청소년 주소지 관할 시군에 추천서와 서류를 공문으로 제출한다.
문의	청소년과 031-8008-4794

외국인 청소년도 받을 수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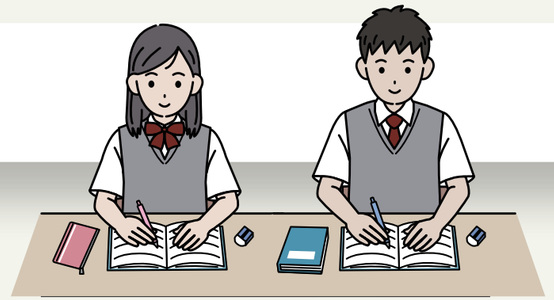


경기도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11~18세 여성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1인당 월 1만3,000원의 생리용품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에는 주민등록상 도내 거주 여성 청소년에게만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도내 등록 외국인과 국내 거소 신고를 한 외국 국적 동포 등 외국인 청소년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화성, 안산, 평택, 시흥, 김포, 광주, 광명, 하남, 군포, 이천, 안성, 의왕, 양평, 여주, 과천, 양주, 구리,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등 21개 시군이 사업을 시행 중이다.

지원 대상	사업 참여 21개 시군의 11~18세 여성 청소년 (2006년 1월 1일~2013년 12월 31일 출생)
신청 기간 및 방법	3월 이후 경기민원24(gg24.gg.go.kr)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
문의	청소년과 031-8008-4764

공부하고 싶은 청소년 모여라



청소년 학습 코칭 및 온라인 서비스 제공

사회적·경제적 배경에 따른 차별 없이 학습 기회를 고르게 보장해 지역·계층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교육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이다. 학습 보충이 필요한 중학생·이에 준하는 학령기 청소년 4,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체계적 학습 관리를 지원한다. 지식(Gseek) 플랫폼 기반 학습 코칭 전용 홈페이지를 2월 말까지 구축해 이곳을 통해 1:1 온라인 학습 코칭을 실시한다. 또 EBS 교과 콘텐츠, 진단평가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서비스도 지원한다. 우수 학습자에게는 진로 탐색, 집중 학습을 위한 성장 캠프를 제공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	학습 보충이 필요한 중학생과 이에 준하는 학령기 청소년 4,000명
사업 기간	2024년 3월(중순)~2025년 2월
신청 방법	경기도 지식(GSEEK) 홈페이지 내 별도 안내 예정 (2024년 3월 중 안내)
문의	평생교육과 031-8008-4794

매일매일 일상이 아름다운 최성우 목공예 작가

글 이정은 사진 전재호

자동차 회사 엔지니어가 목공예 작가가 되어 파주에 자리 잡았다. 그에게 기회란 무엇일까?

시스템 안에서 효율적으로 살다가 자신만의 공간에서 느림의 미학을 실천하고 있다. 단 한 명의 고객을 위해 천천히 나무를 깎는 목공예 작가 최성우 씨 이야기다.

"공대를 졸업하고 외국계 자동차 부품 회사에서 10년 넘게 근무했어요. 일도 삶도 버겁던 어느 날 우연히 프랑스 퐁피두 센터에서 카지미르 말레비치의 '흰 바탕에 검은 사각형'을 보았는데, 알 수 없는 전율이 흐르더군요."

예술과는 거리가 먼 인생이라 생각했고 관심조차 없었는데, 이 전율은 뭘까? 계속 고민하다 변화경영 전문가 구본형 소장을 찾아갔다. 그리고 마침내 꿈을 발견했다. 목공예였다. 그림과 디자인 경험이 전무했기에 전문가들을 찾아다니며 디자인과 목재 다루는 법을 배웠고, 퇴근한 뒤에는 뭔가에 홀린 듯 지하실 공방에서 새벽까지 나무를 깎고 그림을 그렸다. 그렇게 수북한 톱밥과 함께 시간을 쌓은 후 '일상의 도구점'이라는 공방을 열었다.

최성우 작가는…
독보적 커틀러리로 주목받고 있는 목공예 작가. '기술에 머물지 않고 모순을 넘어 좀 더 아름다워질 수 없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며, 작품을 통해 '매일의 아름다움'을 만들고 있다.

"일상의 도구점 콘셉트는 '매일이 만드는 아름다움'입니다. 누군가 '매일 쓰는 물건이 아름다워야 인생이 아름다워진다'라고 하더군요. 턱이 불편한 분을 위한 숟가락, 젓가락질이 서툰 분을 위한 젓가락 등을 만들기 위해 아이디어를 내고 유니크한 디자인을 하면서 창작의 즐거움도 알게 되었습니다."

최 작가는 "목공예는 느리고 고되지만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가치를 새겨 넣은 시간들"이라며 "누군가의 필요와 쓰임이 작가에게는 예술적 성취감으로 돌아온다"고 덧붙였다.

제게 기회는 사람입니다

영감을 좌우하는 만큼 예술가에게 작업 환경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최 작가도 그랬다. 서울 먹골역 근처 지하 공방에서 작업을 하다 파주로 이사 왔는데, 모든 감각이 깨어나는 것 같았다. 계절에 따른 자연의 변화가 확실하게 보이고, 더 민감하게 다가왔다. 작업도 좋은 목재로 잘 깎아 만들다가 자연물이 본래 지닌 형태를 최대한 온전히 유지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사방에 버려진 나무를 보면서 쓸모없는 것의 또 다른 쓸모도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작업은 지난해 연말에 개최한 전시 〈Sugar in the Air: 언제 아름다움이 깃드는가〉로 귀결되었다.

"〈Sugar in the Air〉는 1937년에 발표된 공상과학소설로, 이 책의 주인공이 공기에서 설탕을 만들어내듯 이제까지 쓸모없다고 생각했던 재료에서 또 다른 일상의 도구가 만들어지길 기대하며 전시를 준비했습니다. 반응이 좋아 2월 7일~25일까지 문화역서울284에서 열리는 〈2024 뉴트로 페스티벌〉에 일부를 다시 선보일 예정이에요."

최성우 작가는 이 전시를 계기로 공예에서 순수예술로 작업 영역을 확장했다. 다른 예술가들과 함께 협업을 해보고 싶어 파주타이포그라피학교 청년 작가인 신나무·박주영 씨와 함께 영상과 텍스트를 곁들인 전시도 준비하고 있다.

전혀 다른 분야로 과감하게 전업한 최성우 작가에게 기회란 무엇일까? 그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늘 사람을 통해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하고 반갑다. 정갈하고 따뜻한 그의 작품에서 그 마음이 오롯이 엿보인다. 기물에 따라 사용하는 나무의 종류가 다른데, 최 작가는 주로 박달나무를 쓴다. 워낙 단단해 깎기가 쉽지 않지만, 제대로 만들어놓으면 오래도록 유용하기 때문이다. 대화를 나누는 내내 겉은 소탈하지만 내면은 단단한 최성우 작가와 박달나무가 참 많이 닮았다는 생각을 했다.

안전한 삶을 위한 스마트 웨어러블

세이프웨어

글 이선민 **사진** 전재호

2016년에 창업한 세이프웨어는 스마트 에어백과 사물인터넷 안전 기술을 개발하는 휴먼 세이프티 솔루션 기업이다. 2023년 경기도 유망 중소기업에 선정된 세이프웨어는 추락 사고 시 인명을 보호해주는, 입는 에어백 제품을 출시해 급성장 중이다.

"추락 사고를 막기 위한 각종 기구가 있지만, 사망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A형 사다리를 놓고 하는 간단한 작업이나 레미콘, 유조차, 축사 등 겉보기에는 크게 위험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사고가 계속 발생하거든요. 이 정도 높이에서 작업할 때는 안전망을 설치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 제품은 바로 이렇게 안전 대책이 잘 적용되지 않는 분야를 메우고 있습니다."

신환철 세이프웨어 대표는 인공지능, 섬유과학, 인체공학 등 첨단 기술 융복합을 적용해 한 가지 제품을 개발하는 데만 5년 이상 걸렸다며, 세이프웨어의 산업용 웨어러블 에어백은 세계 최초이자 최고 제품이라고 자신했다. 대표 제품인 산업용 스마트 에어백 C3는 건설 및 산업 현장 작업자의 추락 사고로 인한 중상을 방지하는 웨어러블 에어백이다. 특별한 안전장치를 하지 않는 2~5m 높이의 작업 환경에서 일어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조끼처럼 입는다. 에어백에 내장된 센서를 통해 작업자의 추락이 감지되면 전자식 팽창 장치가 에어백을 0.2초 만에 자동으로 팽창시킨다. 펼쳐진 에어백이 목과 척추, 허리, 골반, 갈비뼈 같은 취약한 부위를 보호한다. 조끼가 추락을 인식하는 동시에 지정된 비상 연락망에 사고 상황을 알리는 '응급콜' 기능도 넣었다. 또 다른 주력 제품은 라이딩 중 충돌 또는 미끄러짐 사고로 인한 부상을 방지하는 바이크용 에어백 조끼 에어베스트 M 시리즈다. 이 제품은 사고 가 발생했을 때 바이크와 제품을 연결한 키볼(key ball)이 이탈되면 인플레이터가 작동하고, 0.2초 이내에 에어백이 팽창해 라이더의 목, 경추, 척추 등 중요 신체 부위를 보호해준다. 신 대표는 이 제품을 농협이나 공공기관에서 구매해 필요한 도민에게 대여하는 방식으로 활용하면 사고를 방지하는 데 일조할 수 있어 기업 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내비쳤다.

"해외 웨어러블 에어백 시장은 대부분 레저용인 반면, 산업용은 세이프웨어가 거의 유일한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업 초기부터 글로벌 진출을 염두에 두고 CES, MWC 같은 해외 전시회에 꾸준히 참가해 제품을 선보여왔습니다. CES에서 3년 연속 혁신상을 받으며 큰 관심을 받은 데 힘입어 올해부터는 해외 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할 예정입니다."

신 대표는 웨어러블 에어백과 관련한 다수의 특허 기술을 보유했기에 이를 활용한 다양한 제품을 개발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고령화 시대에 필수 아이템이 될 고령자 낙상 에어백은 올 하반기에 출시할 예정이다. 전동 킥보드용 에어백도 준비 중이다. 신 대표는 경기도 유망 중소기업에 선정되어 기업의 신뢰를 높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상황에 맞는 웨어러블 에어백을 개발해 해외 시장을 선점해나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추락할 때 에어백이 펼쳐지며 머리와 목, 척추 등을 보호해준다.

Tip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제도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제도는 성장 잠재력이 큰 경기도 중소기업을 발굴해 지역 경제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진행되는 사업이다. 1995년부터 2023년까지 도내 중소 제조 기업, 벤처 기업, 지식 서비스 기업 등 총 6,829개사의 인증 기업을 지원했고, 도를 넘어 글로벌 우수 기업으로 성장하는 발판이 됐다. 인증 기업에는 경기도지사 명의의 인증서와 인증 현판,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시 우대금리 및 지원사업 신청 가점 등 9개 기관에서 운영 중인 61개 항목의 다양한 혜택이 부여된다. 또 유망중소기업 인증 마크를 활용한 포장재와 카탈로그 제작, 온라인 마케팅 등 '브랜드 확산 지원금'을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특화기업지원과 031-8030-3013

새해 아침

염인순

동쪽 하늘이 활짝 열린다.

생명의 에너지가 분수처럼 터진다.

기억 속, 사건들이 유유히 사라진다.

지루하고 길게만 느껴졌던 지난 시간들,

갈 길 잃었던 가녀린 새들의 고공 행진이

우리 마음을 아리게 한다.

이제 모두 안녕,

어둠을 뚫고 높이 비상하는 태양의,

기운에 날개를 달았다.

멀게만 느껴졌던 미래가 나를 깨운다.

견디고, 기다리고,

버티며, 살아내는 자,

새 희망을 볼 것이다.

독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나의 경기도〉가 독자 여러분의 작품을 지면에 담아드립니다.
경기도민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름과 연락처, 시·수필·콩트 등을 자유롭게 적어서 메일로 보내주세요.
magazine@gg.go.kr

경기 양평군 두물머리

전영수
인구통계와 세대 분석으로 사회 변화를 읽어내는 사회경제학자. 한양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로서 혁신 인재를 양성하며 사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주요 관심사는 고령화사회에 진입하는 데 따른 복지 환경 변화 및 대응 체계 마련으로, 한국 사회의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행복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저서로는 〈대한민국 인구 트렌드 2022–2027〉, 〈이케아 세대, 그들의 역습이 시작됐다〉, 〈한국이 소멸한다〉, 〈은퇴 대국의 빈곤 보고서〉 등이 있다.

KOR 나의 경기도
www.gg.go.kr

전영수 한양대학교 국제경영학 교수

지역 살리는 로컬리즘이 인구 위기 해법

글 이선민 **사진** 전재호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7명이라는 충격적 소식에 인구 소멸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세대 분석과 인구 문제를 통해 사회 변화에 발맞춘 지속 가능한 대응 체계를 연구하는 경제학자 전영수 교수에게 인구 위기에 대처하는 해법을 들었다.

2024년 합계출산율(가임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 이하 출산율)은 0.68명을 기록할 전망이다. 2022년 0.78명으로 처음 0.7명대에 진입했고, 2023년 0.72명으로 낮아진 데 이어 이제 0.7명대 아래로 떨어졌다. 한국 출산율을 두고 칼럼니스트 로스 다우서트는 〈뉴욕타임스〉를 통해 "14세기에 유럽을 덮친 흑사병이 몰고 온 인구 감소를 능가하는 결과"라고 평했다. 또 미국의 조앤 윌리엄스 교수는 한국 출산율에 대해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 와!"라고 탄식했다. 정말 인구가 지금처럼 감소하면 나라가 망하는 걸까?

"인구 변화는 결과이자 원인입니다. 저성장 시대에 미래가 불투명하니까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하고 아이도 낳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면 갈수록 저성장이 심화되어 사람들이 더더욱 아이를 낳지 않게 됩니다.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면 출산율이 더욱 낮아져 100년쯤 후에는 아예 한국인이라는 존재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일본에서 유학하며 일찌감치 고령화와 연금 문제를 연구해온 전영수 교수는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고령화와 저출생 속도가 훨씬 빠르다며, 이미 인구 위기 해결의 골든타임을 놓친 것일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40~50년 동안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온 일본도 현재 상황이 좋지 않은데, 우리나라는 아예 준비조차 하지 않아 더 큰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는 경고이기도 했다.

제조업이 아닌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이 필요한 때

전 교수는 MZ세대가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똑똑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개발도상국은 정보의 비대칭성이나 불확실성 때문에 가족을 결성해 노동력을 확보하고 불확실성을 해소하려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대학 진학률이 75%에 육박할 정도로 고학력이라 MZ세대의 상황 판단 능력이 뛰어나다. 이들은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해답이 없는 현실을 확실히 깨닫고 있기에 자신을 챙기기에도 벅찰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지만, 산업구조는 여전히 후진국 형

>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된 데는 기성세대의 역할이 컸습니다.
> 하지만 MZ세대는 태어날 때부터 선진국인 한국에서 살고 있어요.
> MZ세대만의 선진국 룰과 질서가 있는데, 후진국의 룰과 질서에 익숙한
> 기성세대가 자신의 룰을 따르라고 하니 세대 갈등이 생기는 거죠.

태를 벗어나지 못해 제조업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이것을 바꿔야 합니다. 인구 위기는 인재 혁명으로 풀어야 합니다. 인재를 키워 고부가가치를 만들어나가야 해요. 고부가가치를 만든다는 것은 과거에는 없던 산업의 탄생을 뜻합니다. 이 똑똑한 MZ세대가 일할 수 있도록 혁신적 산업구조의 변화가 필요한 거죠."

전 교수는 '타다'를 예로 들었다. 같은 택시 운전을 한다고 해도 MZ세대는 타다 같은 혁신적 시도를 했다. 그런데 기존 택시 기사들의 반발이 심해 사업을 해나갈 수 없었다. 이 기성세대가 세워놓은 벽이 MZ세대의 희망을 앗아가는 요인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인터넷 속도가 압도적으로 빠르고 인프라도 잘 구축되어 있는데,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혁신적 스타트업이 탄생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기성세대의 벽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된 데는 기성세대의 역할이 컸습니다. 하지만 MZ세대는 태어날 때부터 선진국인 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MZ세대만의 선진국 룰과 질서가 있는데, 후진국의 룰과 질서에 익숙한 기성세대가 자신의 룰을 따르라고 하니 세대 갈등이 생기는 거죠. 인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성세대가 독점한 부와 권력을 내려놓아야 하는 거죠."

생산 가능 인구인 15세가 20만 명 남짓인데, 1955~1975년에 태어난 인구가 1,700만 명이다. 1975년생이 65세로 진입하는 2040년이면 수십만 명의 생산 인구가 1,700만 명을 부양하는 사회구조가 된다. 전 교수는 기성세대가 지금처럼 모든 것을 독점하는 분위기가 바뀌지 않는 한 똑똑한 아이들이 이 사실을 잘 알고 각자도생을 준비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로컬 기반의 경기 모델 구축으로 새로운 길 제시해야

그렇다면 인구문제 해결 방안은 무엇일까? 전 교수는 로컬 공간을 건강하고 지속적인 생활 단위로 재구성하는 로컬리즘에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 세계에서 총인구가 줄어드는 나라는 일본·한국·중국 세 나라뿐인데, 공통점인 입신양명을 위한 유교적 마인드가 강하다는 데서 문제를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선진국이 그나마 1.6명 수준의 출산율을 유지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도농 간 이동이 적은 덕분이라고 주장했다. 인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주립대학교를 최고 명문대로 만들고, 특화 산업도 이탈 없이 정주하며 순환 경제를 일궈내는 데서 답을 찾아야 한다.

> 인구 위기 시대에는 경기도가 살아야 한국이 삽니다.
> 경기도 곳곳에서 도시와 지방의 상생을 위한
> 시범 사업이 수백 개씩 펼쳐져야 합니다.
> 그렇게 해서 효과가 있는 것은 좀 더 키워보고,
> 실패하면 다른 방법을 찾으면 됩니다.
> 경기도가 가는 길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었던 길이에요.

"지방에는 먹이가 없고, 서울에는 둥지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먹이와 둥지의 공간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시급한데, 그것이 바로 로컬리즘입니다. 지역 재생, 지역 활성화라고 할 수도 있지요. 로컬 기반을 튼실하게 구축하면 굳이 먹이를 찾아 서울로 올 필요가 없어요. 전 국토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52% 인구가 몰려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가 말한 로컬리즘은 숨죽였던 풀뿌리 주체가 새롭고 강력하게 순환 생태의 복원 주체로 부각되는 것을 뜻한다. 튼튼한 혈관(로컬 기반)과 건강한 새 피(신형 주체)가 뒷받침될 때 보물찾기(지역 자산 발굴)와 구슬 꿰기(혁신 모델 구축)를 축으로 하는 로컬리즘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것이다. 전 교수는 유일하게 인구가 늘고 있는 경기도가 경기 모델이라는 것을 제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은 도시고, 지방은 로컬이다. 경기도는 도시와 로컬 양면을 모두 지닌 유일한 곳이다. 그래서 경기도가 도시와 지방의 이슈를 풀어주는 접점 역할을 하기에 최적화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인구 위기 시대에는 경기도가 살아야 한국이 삽니다. 경기도 곳곳에서 도시와 지방의 상생을 위한 시범 사업이 수백 개씩 펼쳐져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효과가 있는 것은 좀 더 키워보고, 실패하면 다른 방법을 찾으면 됩니다. 경기도가 가는 길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었던 길이에요.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선진국 뒤를 따라가기만 해도 되는 후발 주자의 이득을 누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젠 우리가 먼저 가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오히려 선진국이 우리나라를 지켜보고 있어요. '너희가 실패하면 우리는 안 할 것이고, 너희가 성공하면 따라 할게'라는 생각인 거죠."

전 교수는 시급히 경기 모델을 만들어 한국만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앞장서고, 향후 세계적 모델이 되어야 한다고 다시 한번 주장했다. 경기도가 국제연합(UN)에서 "인류의 미래는 경기의 길이다"라고 선언하며 과감하게 다양한 로컬리즘을 시도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 세계가 가장 드라마틱한 인구문제에 봉착한 대한민국을 주목하는 지금, 경기도가 해답을 달라는 주문이기도 했다.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인구 위기 해결사로 나서달라는 전 교수의 요청이 과하게 느껴지지 않는 것은 경기도의 위상이 그만큼 높아졌음을 방증하는 것이 아닐까.

건강하고 맛있게! 평택 에코 투어

글 이정은 **사진** 전재호

유기농 채소를 재배하는 로컬 크리에이터부터 문화 휴식 공간으로 거듭난 쓰레기 소각장까지 평택에는 자연과 환경, 사람을 생각하는 공간이 많다. 젊고, 건강하고, 맛있는 평택을 만나본다.

Info

로컬 크리에이터란?
지역을 뜻하는 로컬(local)과 콘텐츠를 제작하는 사람이란 의미의 크리에이터(creator)를 합친 말이다. 지역의 문화·관광 자원 등을 토대로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거나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을 뜻한다.

평택 로컬 크리에이터, 최린 오엠지팜마켓 대표

대학에서 농업을 전공하고 러시아에서 농업 컨설팅을 했던 최린 대표는 지난 2015년 우연히 들른 귀농·귀촌 박람회에서 경기도의 '창농팜'을 접한 뒤 곧바로 농부가 되었다. 창농팜은 예비 농부에게 농업 기술부터 마케팅, 임대 농장까지 농사와 관련한 모든 것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다.

"무농약으로 채소를 길러 팔려고 했는데, 판로가 마땅치 않았어요. 마침 평택시가 전통시장 상권을 살리는 차원에서 청년몰 지원사업을 했고, 통복시장 청년숲에 샐러드 식당 오엠지팜마켓을 냈습니다. 제가 키운 채소로 샐러드를 만들어 파는 거죠."

최린 대표는 "농업 트렌드도 계속 바뀌기에 작물 재배뿐 아니라 브랜딩과 마케팅이 이뤄져야 한다"며 "농업을 업으로 하기 위해서는 비즈니스 플랜을 탄탄하게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장과 오엠지팜마켓뿐 아니라 통복시장 청년숲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최린 대표. 경기도의 대표 청년 농부인 그는 '농업계의 백종원'을 꿈꾸며 동분서주하고 있다.

유기농 채소와 전통주의 궁합, **오엠지팜마켓**

최린 대표가 재배한 유기농 채소를 샐러드로 선보이는 곳. 상추, 케일, 치커리, 로메인, 루콜라, 식용 허브 등 아삭하고 싱싱한 채소가 듬뿍 들어가면서 가격도 착하다. '파인애플새우샐러드', '타이풍불고기샐러드', '허니리코타치즈샐러드'를 8,000~9,000원에 맛볼 수 있다. 맞은편 매장에서는 전통주를 파는데, 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시작하게 되었다고. 전통주와 샐러드의 궁합이 의외로 잘 맞는다.

주소 경기도 평택시 통복시장로13번길 8
문의 031-656-3293

쓰레기 소각장의 변신, **오썸플렉스**

평택시민이 즐겨 찾는 워터파크 오썸플렉스는 쓰레기 소각장이자 열병합발전소다. 평택시가 쓰레기 소각 시설을 조성하면서 지하에 재활용 선별 시설과 폐기물 처리 시설을 만들었고, 지상에는 워터파크와 찜질방, 스핀라이더 극장, 체육관, 게이트볼장, 야구장 등 복합 문화 스포츠 시설을 구축했다. 워터파크엔 인공 미끄럼틀부터 수영장까지 다양한 물놀이 시설을 갖춰 인기가 높다. 혐오 시설인 쓰레기 소각장이 다양한 문화 혜택과 체육 활동, 여유로운 휴식을 즐길 수 있는 휴식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

●●●

주소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도시지원1길 91
문의 0507-1342-8024

평택의 핫 플레이스를 소개합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 **초록숲상점**

"코로나19로 배달이 늘면서 집 안에 일회용품이 넘쳐나더라고요. 그걸 보니 문득 두려운 생각이 들었어요." 서연 대표는 이웃과 함께 나누고 싶어 제로웨이스 숍인 초록숲상점을 열었는데, 평택에서 최초였다. 한적한 주택가 골목에 위치한 초록숲상점은 마치 소품 숍처럼 아기자기 예쁘다. 주인장의 취향이다. 천연 수세미, 비누, 대나무 칫솔, 손수건, 생리대, 치약 등 생활에 필요한 친환경 제품을 다양하게 구비했으며, 세제 용기를 가져와 채워 가는 세제 리필 스테이션도 있다.

●●●

주소 경기도 평택시 용죽6길 22 101호
문의 0507-1454-0046

평택 청년들을 위한 문화 공간, **청년쉼,표**

평택 청년들의 사회 참여 확대와 청년 문화 활성화를 위한 평택시 청년 지원센터. 커뮤니티 휴식 공간을 포함해 예술·창작 스튜디오, 교육·상담실, 공유 부엌·다목적실 등이 마련돼 있다. 지하 1층에는 댄스 연습실과 밴드 연습실, 콘텐츠 제작실, 피아노 개인 연습실이 있는데, 각종 장비와 기구, 악기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어 편리하다. 1층 커뮤니티 룸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며, 2·3층에 마련된 스터디 룸, 공유 오피스, 다목적실은 소규모 모임이나 동아리 활동, 스터디 공간으로 인기가 높다.

●●●

주소 경기도 평택시 평택1로9번길 23
문의 031-691-9917

KOR 나의 경기도 www.99.go.kr

갓 짠 우유로 매일 만드는 요거트와 젤라토, **유옥목장카페**

청년 축산인 곽진영 대표가 축산 농가를 기피하는 인식을 개선하고 우유를 이용한 가공식품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문을 연 카페. 원유는 아버지가 운영하는 유옥목장에서 갓 짠 신선한 우유이며, 요거트는 우유 본연의 고소한 풍미가 가득하다. 이탈리아에서 만드는 방법을 배운 젤라토는 최상급 생크림 맛이 일품. 감칠맛 가득한 고다 치즈는 '2023 목장형 자연치즈 경연대회'에서 금상을 받았다. 매장과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유옥목장'에서 구입할 수 있다.

●●●

주소 경기도 평택시 송탄로 165 1층
문의 070-7758-1012

고향을 돕고 싶은 것이

기부자들의 마음일 겁니다

글 이선민 **사진** 화성시청

지난해 처음 도입한 경기도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한 기부금 모금액에서 화성시가 1위를 차지했다. 몸은 떠났어도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을 잊지 않은 이들 덕분이다.

To. 화성시

제 고향은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입니다. 1973년 고향을 떠나 줄곧 서울에서 살았지만, 아직 그곳에는 어머님도 계시고 어릴 적 친구들도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수시로 고향을 찾아가 어머님도 뵙고, 친구들과 회포를 풀기도 합니다. 어릴 때부터 농업에 관심이 많았던 저는 새마을운동이나 4H운동도 하면서 농협에 입사해 낙후된 농촌을 살리는 데 앞장서왔습니다. 그런 만큼 고향사랑 기부제가 등장했을 때 기쁜 마음으로 고향에 기부했지요.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이지만 지역에 도움이 될 테니까요. 기부하고 받은 지역화폐로 고향 친구들에게 한턱 쏘면서 고향사랑 기부제를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은퇴하면 고향에서 살기 위해 송산면에 전원주택도 지었습니다. 신흥사에서 가까운 곳이라 풍광이 참 좋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가 더욱 활성화되어 제 고향은 물론 농촌 모두 잘살 수 있는 씨앗이 되면 좋겠습니다.

From. 서울에서 안용승

2023년 기부자가 많이 선택한 답례품 '화성수향미'

조암농협미곡종합처리장

화성수향미는 세계 어느 품종에서도 활용되지 않은 야생 재래 향미를 전통적 육종 방법으로 활용해 특허받은 신품종 벼 '골든퀸 3호'를 서해 바닷바람 가득한 청정 토양에서 재배한 쌀입니다. 아밀로스 함량이 낮아 찰기와 식감이 우수합니다. GAP(우수농산물 관리 인증) 시설 인증을 받은 최첨단 RPC 시설 및 도정 기술을 통해 엄격한 품질관리와 깨끗한 남양만의 농업용수로 재배하는 청정한 화성수향미는 조암농협이 최상의 신선도를 유지해 품질 분석 후 합격품만 출하합니다. 오후 2시 이전 주문 고객에 한해 당일 발송하기에 언제나 신선하고 질 좋은 쌀을 만날 수 있습니다.

www.99.go.kr

Info

고향사랑 기부제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제 혜택과 함께 지역 특산품을 답례로 제공하는 제도.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지방 소멸 위기에 대한 대응책이기도 하다. 기부 상한액은 1인당 연간 500만 원이며, 지자체는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 기부금 10만 원 이하는 전액,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고향사랑e음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전국 농협은행을 방문해 기부할 수 있다.

문의
경기도청 자치행정과 031-8008-3630
화성시청 자치행정과 031-5189-7223

화성시 답례품 둘러보기

화성시는 수향미, 포도 와인 등 화성의 특산물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답례품을 구비했다. 지난해 29종의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을 마련한 화성시는 앞으로도 기부자들에게 더욱 다양한 화성시 고유의 우수한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화성시 캐릭터
티렉스, 코리요,
달콩이, 알콩이

45,000P

인플로라팟 황토 쌀독
국산 황토를 100% 물레로 수작업한 황토 쌀독은 원적외선과 음이온을 방출해 곡물과 과일의 신선도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다. 쌀벌레도 예방해준다.

200,000P

맥간 돔 보석함
농가 부산물인 보리 줄기로 만든 화성시 지역 향토 명품. 화성시 공예 명장 이성재 대표가 섬세한 수작업으로 만든 보석함이다.

30,000P

샌드리버 포리버 와인 4종(택1)
화성시의 우수한 특산품인 송산 포도로 만든 지역 기반 특산주. 올해 상반기 오드비 브랜드도 출시할 예정이다.

30,000P

제부도 전통 양조 식초
제부도 바닷바람과 햇빛으로 전통 식초 항아리에서 알코올 발효와 초산 발효 과정을 거친 천연 자연 발효 식초. 총 여섯 종류를 출시했다.

30,000P

제부도 해상 케이블카 '서해랑' 크리스탈 캐빈 이용권(왕복) 2매
전곡항과 제부도를 잇는 해상 케이블카. 바다 위에서 제부모세길, 누에섬, 해상풍력, 마리나의 요트 등을 내려다볼 수 있다.

어르신들 건강하세요

몸과 마음 모두 돌보는 경기도 어르신 건강 관리

옆집 어르신이 당뇨와 고혈압을 앓고 있습니다. 혼자 살고 계셔서 항상 걱정이 되지만, 저도 직장에 다녀 자주 찾아뵙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르신이 혼자 건강관리를 하기 힘드실 것 같은데, 도와드릴 방법이 없을까요?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은 건강 상태 개선이 필요한 홀몸 어르신을 대상으로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맞춤형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건강 위험 요인(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등)을 지닌 어르신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통해 건강 지표를 개선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서비스 내용

사업 참여자에게는 손목 활동량계와 블루투스 체중계를 비롯해 건강 위험 요인 등에 따라 혈압계, 혈당계, AI 스피커 등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참여자에게 제공한 기기를 통해 측정된 신체 활동량, 혈압, 혈당 등 건강 측정 정보는 '오늘건강' 앱과 연동된다. 보건소 전문 인력이 데이터를 모니터링하고, 대상자는 맞춤형 건강 컨설팅과 건강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받아볼 수 있다. 만성질환을 앓거나 허약 체질, 건강 상태 개선이 필요한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대상이다. 스마트폰이 없는 어르신의 경우 '화면형 AI 스피커'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Plus Tip

용인시 기흥구, 평택시 평택동, 평택시 송탄동, 화성시 서부, 화성시 동탄동, 화성시 동부, 시흥시, 광주시, 여주시, 안산시 단원구, 광명시, 구리시, 안성시, 파주시, 군포시, 김포시, 의왕시, 양평군, 연천군, 하남시, 성남시 수정구, 성남시 중원구, 성남시 분당구, 양주시, 안양시 만안구, 안양시 동안구, 이천시 27개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경기도 전 보건소로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신청 방법

건강관리가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주소지의 보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건강증진과 031-8008-3264

어머니가 얼마 전부터 자꾸 현관문 비밀번호를 잊어서 집에 들어오지 못하고 가족이 올 때까지 밖에서 기다리는 경우가 잦아졌어요. 혹시나 해서 치매 검사를 받으러 치매안심센터에 가보자고 권해봤지만, 계속 거부하시네요.

경기 스마트 인지 검사

치매는 진단이 빠를수록 치료에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다. 경기도는 스마트폰을 통해 간단히 진단할 수 있는 경기 스마트 인지 검사를 시행해 선제적 치매 예방 관리망 구축에 나섰다. 도는 수원, 양주, 가평 등 3개 시군에서 시범 사업을 거친 뒤 향후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서비스 내용

치매안심센터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편한 시간, 편한 장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 기기를 통해 무료로 검사받을 수 있다. 스마트폰을 이용해 3분간 말로 하는 검사로 결과까지 확인할 수 있어 간편하다. 치매 위험군인 경우 치매안심센터를 안내해 조기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가족이나 지인의 스마트 기기로도 검사가 가능하다.

Plus Tip

평소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이 어려운 경우 도움받기 방법으로 진행한다. 가족이나 지인, 치매 파트너가 검사를 도와준다. 치매 검사를 돕는 치매 파트너로 활동하고 싶다면 경기도광역치매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치매 파트너 활동을 봉사 시간에 반영하며, 향후 우수 파트너를 선정해 시상할 예정이다.

신청 방법

경로당, 복지관, 행정복지센터, 기타 유관 기관에 게시된 포스터에 있는 QR코드를 찍으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검사 받아보기

건강증진과 031-8030-3262

황혼의 멋진 만남, 인생은 아름다워!

정리 이정은 **사진** 전재호

베트남 아내와 황혼 결혼 후 오순도순 살고 있는 김유민 씨. 결혼사진을 대신할 행복한 가족사진이 2월호 꿈꾸는 사진관을 장식한다.

남은 세월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삽시다

59세라는 비교적 이른 나이에 아내가 저세상으로 떠나고, 정년퇴직까지 하고 나니 무척 외롭더군요. 그러다 2011년 베트남 호찌민 인근에 있는 우리나라 기업에 다시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아내를 처음 만났지요. 이름은 레띠 투 홍이고, 안사람 역시 남편과 헤어진 뒤 혼자 지내고 있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우연히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제법 잘 맞더라고요. 제가 근무했던 롱안은 호찌민에서 80km 떨어진 곳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수시로 오가며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젊은 사람들 말로 하면 '롱 디스턴스 러브'였지요. 2017년에 퇴사를 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2015년에 처음 만났으니 벌써 10년이 다 되어가네요.

아내는 베트남에서 대학에 다니는 두 딸을 두고 오로지 저만 보고 한국에 왔습니다. 양평의 겨울은 많이 추워서 아내에게는 힘든 환경입니다. 그럼에도 불평불만 없이 잘 살아줘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혼인신고는 했지만 제대로 된 결혼사진 하나 없었는데, 이렇게 가족사진을 찍게 되어 너무 기쁩니다. 새해 정초부터 큰 선물을 받았으니 올 한 해는 행운이 가득할 것 같네요. 여보, 이 나이에 당신을 만나 진심으로 고맙고 사랑하오. 남은 세월도 건강하게 함께 갑시다.

- 남편 김유민으로부터

Info

스튜디오 노르딕 by 강재브로

스튜디오 노르딕 by 강재브로는 가족, 아기 촬영 전문 스튜디오입니다. 렌털, 파티 룸 대관도 가능한 복합 스튜디오입니다.

주소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용문로 316-1 2층
문의 010-6318-3912

무료로 기념사진을 찍어드립니다!

가족과 친지는 물론 사랑하는 반려동물과의 소중한 순간을 사진으로 남겨보세요.
〈나의 경기도〉 이메일로 이름, 연락처, 인원수, 신청 사연을 적어 보내주세요.
참여 방법 magazine@gg.go.kr
참여 선물 액자나 앨범, 원본 사진 등

지난해 11월 11일 개통한 봉화길은 한양에서 태백산사고가 있던 경북 봉화를 연결한 봉화로를 고증해 조성한 길이다. 제1길 덕풍천길은 하남에서 남한산성 북문 구간이다.

조선왕조의 실록을 옮기던 길

봉화길 덕풍천길

글 이인철 **사진** 전재호

조선 시대 한양에서 경북 봉화를 잇던 경기옛길 봉화길. 지난해 11월 11일 개통한 곳으로, 조선왕조의 기록이 옮겨지던 길이다.

경기옛길

봉화길은
경기도는 하남, 광주, 여주, 이천, 경기문화재단과 함께 한양에서 경북 봉화를 잇는 봉화로의 옛 노선을 연구 고증하고, 그 원형 노선을 바탕으로 봉화길을 조성했다.

한양에서 봉화 태백사 사고(史庫)까지

'경기도 봉화길'. 5호선 하남검단산역 2번 출구로 나오면 바로 앞 은방울공원에 봉화길 제1길 덕풍천길 안내판이 있다. 지난해 개통한 봉화길의 의미와 전 구간에 대한 설명이 자세히 적혀 있다. 봉화길은 조선 시대 김정호가 편찬한 〈대동지지(大東地志)〉에서 구획한, 한양과 지방을 연결한 10대로 중 봉화로(奉化路)를 역사적 고증을 거쳐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조성한 길이다. 당시 봉화로는 한양에서 광주, 이천, 충주를 지나 태백산사고(太白山史庫)가 있던 경상북도 봉화 지방을 연결했다. 안내판 바로 옆에 있는 한옥 모양 스탬프함이 봉화길의 의미를 더한다. 바로 경북 봉화에 있던 조선왕조 태백산 사고(史庫)의 모형이다. 사고는 역사 기록을 보관하는 곳으로, 선조는 임진왜란 이후 춘추관, 태백산, 묘향산, 강화 마니산, 오대산 다섯 곳에 사고를 짓고 〈조선왕조실록〉과 왕실 족보인 '선원보(璿源譜)'를 보관했다. 조선왕조의 역사가 옮겨지는 출발점에서 파란만장했던 조선의 역사를 상기하며 남한산성으로 발걸음을 옮겨보자.

사계절 새들을 품은 당정뜰의 넉넉한 품

은방울공원을 지나 5분 정도 직진하면 산곡천 변으로 들어선다. 천변을 따라 10여 분 걸으면 팔당대교 아래 한강 변으로 이어지고 하남의 앞마당 당정뜰이 나온다. 당정뜰은 한강 중류의 배후습지로 사계절 내내 새들의 보금자리 역할을 하는 곳이다. 겨울에는 고니와

www.99.go.kr 나의 경기도

Info

코스 정보
코스 하남검단산역–당정뜰–하남시청–광주향교–남한산성 북문–남한산성 로터리
거리 13km **소요 시간** 4시간 20분 **난이도** 중

허영호
산악인이자 탐험가. 에베레스트 등정을 시작으로 3극점과 7대륙 최고봉을 모두 오른 인류 최초의 산악인이다. 드림앤어드벤처 대표로 등반, 트레킹 등 다양한 영역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모험과 도전을 즐기는 그는 경비행기 세계 일주도 준비 중이다.

남한산성 북문(전승문) 구간은 병자호란 현장이다. 병자호란 당시 청나라 10만 대군이 진을 치고 인조의 항복을 강요한 곳이다.

태조 5년 향교 설립 후 식재했다고 전해지는 은행나무. 공자 · 맹자 · 주자의 위패를 모신 장소로, 관청과 마을에서 연 1회 제사를 지내고 있다.

오리가 터줏대감이 되고 참수리, 흰꼬리수리가 수시로 날아온다. 주변에서는 새들의 모습을 담기 위해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누르는 사진가도 자주 볼 수 있다. 당정뜰을 지나면 한강을 벗어나 덕풍천길로 이어지고 고골사거리에서 광주향교를 만난다. '고골'은 고읍(古邑)에서 유래한 말로, 광주목 읍치(邑治, 고을을 다스리는 곳)를 남한산성으로 옮기기 전 이곳에 읍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광주향교는 교육 공간은 물론, 학생들의 기숙사를 갖춘 큰 규모의 향교다. 보호수로 지정된 은행나무의 역사를 읽어보니 태조 5년 이곳에 향교를 짓고 식재했다고 한다.

병자호란의 아픈 역사를 되새기다

광주향교를 지나면 상사창동이 나온다. 조선 시대 이곳에 세미(稅米)를 보관하는 창고가 있어 붙은 지명이다. 이곳부터 남한산성 북문(전승문) 구간은 병자호란 현장이다. 병자호란 당시 청나라 10만 대군이 진을 치고 인조의 항복을 강요한 곳이다. 고요하고 한적한 산길이지만 가파른 오르막이 이어지고, 곳곳에 눈이 쌓여 있으니 주의해서 걸어야 한다. 오르막이 끝날 때쯤 남한산성 북문이 그 위용을 뽐낸다. 동서남북에 문이 4개 있는데, 북문은 병자호란 당시 성문을 열고 나가 기습 공격을 감행했던 문이다. 이를 '법화골 전투'라고 하는데, 병자호란 당시 최대 규모이자 그야말로 참패한 전투였다. 정조 3년 성곽을 개보수하면서 성문을 개축하고 북문을 싸움에 패하지 않고 모두 승리한다는 뜻에서 '전승문'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그때의 치욕적인 패전을 잊지 말자는 의미일 것이다. 성문을 지나면 남한산성 역사 테마길과 연결된다. 2코스 국왕의 길을 따라가면 덕풍천길의 종점 남한산성 로터리가 나온다. 뒤돌아 남한산성을 바라보며 돌아온 길을 상기해본다. 아마도 이 길을 따라 병자호란의 기록을 담은 〈조선왕조실록〉도 태백산 사고로 옮겨졌을 것이다.

사진 촬영 명소

당정뜰

무성한 갈대 사이로 철새들이 한가로이 노니는 풍경이 평화롭다. 날아오르는 새들의 날갯짓을 카메라에 담기 좋고, 한강 너머로 팔당대교와 남양주 예봉산을 볼 수 있다.

광주향교

경기 지역에서 평지에 세운 유일한 향교. 동재와 서재, 동무와 서무를 모두 갖춘 큰 규모의 향교다. 한옥의 아름다움과 고즈넉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곳으로, 문화해설사의 해설도 들을 수 있다.

경기옛길 바로가기

Tip

시작점 찾아가기

지하철 5호선 하남검단산역 2번 출구

부대찌개의 전설

의정부 경원식당

글 박찬일 사진 전재호

동두천, 송탄, 파주, 의정부. 부대찌개로 유명한 지역이다. 부대찌개는 경기도가 만든 기적의 음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중 의정부를 대표하는 부대찌개 노포가 바로 경원식당이다.

44년간 지켜온 한결같은 맛

먼저 질문부터 하고 가자. 부대찌개는 한식일까, 아닐까? 보통 퓨전이라고 대답할 듯하다. 나는 한식이라고 생각한다. 한국 말고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음식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한식이 될 수밖에 없다. 미군이 오래 주둔한 일본에도 이런 음식은 없다. 오키나와 등지에 미국 재료를 약간 쓴 퓨전 음식이 있는데, 그들 역시 일식의 범주에 넣는다. 어쨌든 부대찌개는 한식으로 보자. 김치, 파, 마늘을 듬뿍 쓰고 고춧가루를 넣지 않나. 전형적인 한식이다. 게다가 사실상 한국인만 먹으니까.

의정부 경원식당은 의정부 부대찌개의 산증인이다. 가게를 연 분은 어머니 김명남(79) 씨다.

"의정부 일대에만도 미군 부대가 많았죠. 1군단이 있고 비행단, 탄약 부대 등 미군 부대가 많았어요. 동두천 전방 사단에서도 오고요. 뭐, 정품이 없었죠. 부대에서 흘러나오는 걸 썼어요. 지금은 다 정식 수입품이나 국산이죠. 부대에서 나오는 건 전혀 없어요."

부대찌개 원조는 꿀꿀이죽이라고 한다. 힘들고 배고픈 시절, 미군 부대에서 나온 '잔반'을 끓여 먹었던 데서 출발하기 때문이

이제 부대찌개는 재료를 사서 집에서도 많이 만들어 먹는다. 밀키트 중 부동의 1위가 부대찌개라고 한다. 부대찌개는 가히 한국 음식사에서 혁명이었고, 의정부·동두천·파주·송탄·오산 등 미군이 주둔하는 경기도가 만들어낸 기적의 유행이었다.

"우리 집은 햄, 소시지 등 기본 재료를 미군 부대에서 왔어요.
나머지는 순 한식이에요."

다. 그러나 이 둘은 다른 음식이다. 꿀꿀이죽은 레시피가 없다. 잔반이나 부정 반출물에 흔한 밀가루를 풀어 먹었다. 그때그때 달랐다.

하지만 부대찌개는 의정부 미군 부대에서 나온 재료를 한국식으로 만든 '엄연한' 음식이다. 가게마다 레시피도 있다. 경원식당은 44년이 흐르는 동안 거의 변하지 않는 조리법을 고수한다. 지금은 부대찌개 골목이라고 하는데, 과거에는 오뎅식당과 경원식당 정도만 영업했다. 점차 늘어 이제는 많은 가게가 노포 축에 들어간다. 언론 덕이 컸다. 값싸고 맛있는 이 요리가 신문, 방송을 타자 전국에서 먹으러 왔다. 우리 입맛에도 딱이다. 이제 부대찌개는 재료를 사서 집에서도 많이 만들어 먹는다. 밀키트 중 부동의 1위가 부대찌개라고 한다. 부대찌개는 가히 한국 음식사에서 혁명이었고, 의정부·동두천·파주·송탄·오산 등 미군이 주둔하는 경기도가 만들어낸 기적의 유행이었다. 이 음식에는 현대사의 우여곡절이 있다. 이처럼 부대찌개는 슬픈 음식에서 당당히 우리 음식사의 주역이 됐다. 놀라운 일이다.

깊은 국물 맛의 원천은?

경원식당은 원래 체신부 공무원이었던 김 씨의 아이디어로 시작했다.

"제가 지역민이다 보니 아는 사람이 많았어요. 체신부 공무원들이 우리 가게에 와서 회식도 하고 모임도 했죠. 맛있다고 소문이 나다 보니 의정부 시내에서는 다 우리 가게를 알게 됐지요."

지금은 별로 없지만 과거에는 계 모임이 흔했다. 상호부조의 전통이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만나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우정을 다진다. 그때 부대찌개를 먹곤 했다. 싸고 맛있으니 인기가 높을 수밖에 없었다. 무엇보다 단백질이 부족한 시대에 최고 영양 공급원이었다. 햄과 소시지를 듬뿍 넣어주니 더 좋아했다.

"우리 집은 햄, 소시지 등 기본 재료를 미군 부대에서 받았어요. 나머지는 순 한식이에요."

이 식당 주방에는 아주 커다란 육수 통이 여럿 있다. 멸치를 일일이 끓여서 만든다. 깊은 맛의 원천이다. 미군 부대에서 재료가 나오지 않은 지는 오래되었다. 개업 초창기에는 주로 미군 부대 주방, PX 물건을 썼다. 근처 의정부시장에도 미군 부대 물건이 지천이었다. 거기서 사오기도 했다. 그러다 상황이 바뀌었다. 세무 당국, 보건 당국의 단속이 철저해지면서 '야미'라고 하던 반출물을 쓰기 힘들어졌다. 그 무렵 미군 부대에서도 반출을 칼같이 막기 시작했다. '어둠의 경로'가 점차 사라져갔다. 1990년대 들어서는 사실상 정식 경로로만 사서 쓰게 됐다. 수입도 많아지고, 국내 생산품도 질이 좋아졌다.

부대찌개는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다. 파주는 대파를 많이 넣고, 의정부는 김치를, 동두천은 여러 가지 육가공을 섞어 쓰고, 송탄과 오산은 칠리콩을 넣기도 한다. 각자 다른 방식의 부대찌개 조리법이 서로 경쟁하고 있다. 이 또한 놀라운 일이다.

경원식당은 아들 황승현 씨에게 대물림되고 있다. 찌개 한 냄비를 청했다. 국물이 시원하고 깊다. 햄과 소시지 등도 푸짐하다. 너무 기름지지 않으면서도 간결하다. 있을 것 있고 지나친 게 없다. 이게 좋은 부대찌개라고 생각한다. 한국 현대사의 아픔에서 당당히 대중적 미식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한 부대찌개. 아이러니한 음식에서 이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차지하는 존재로 바뀌었다. 한국이 재미있는 건, 이런 음식 때문이기도 하다.

박찬일
누군가는 '글 쓰는 셰프'라고 하지만 본인은 '주방장'이라는 말을 가장 아낀다. 오래된 식당을 찾아다니며 주인장들의 생생한 증언과 장사 철학을 글로 써서 사회·문화적으로 노포의 가치를 알리는 데 일조했다. 저서로는 〈백년식당〉, 〈노포의 장사법〉 등이 있고 〈수요미식회〉 등 주요 방송에 출연했다.

Info

경원식당
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둔야로49번길 21
문의 0507-1420-5464

새해 운동하기로 결심했다면? '1530'으로 걷자!

글 이정은

걷기 운동으로 건강해졌다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제대로 걷지 않으면 운동 효과를 보기 어렵다. 올바른 자세로 1주일에 5일 이상, 최소한 30분 이상 걸어야 한다.

만만한 '걷기 운동'의 만만치 않은 효과

걷기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운동이다. 나이가 들면 심근 섬유소와 폐 조직이 줄어들어 심폐 기능이 떨어진다. 이는 각종 질환의 원인이 되는데, 꾸준히 걸으면 근육세포 기능이 강해져 산소 공급 능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심폐 기능 향상에 도움이 된다. 노년층에 주로 생기는 관절 통증 감소와 하체 근력 강화에도 도움이 된다. 하체 근육이 발달하면 무릎을 보호하는 관절의 힘이 세지기 때문. 섭취한 음식을 복부에 지방으로 저장하지 않고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에 식사 후 걷기는 당뇨를 개선하는 데에도 효과가 있다. 또 걷기 운동을 하면 혈압을 올리는 작용을 하는 호르몬 분비가 억제되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혈압과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지는 효과도 볼 수 있다.

"슬슬 걷는 건데 살이 빠지겠어?"라고 반문하는 사람도 많지만 걷기는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된다. 15분 이상 걸으면 지방이 분해되어 에너지원으로 쓰이기 때문이다. 햇볕을 받으며 야외에서 걸으면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세로토닌과 통증을 완화하는 엔도르핀이 분비돼 마음이 안정되고 우울감도 줄어든다.

Info

운동 효과 높이는 바르게 걷는 자세

KOR 나의 경기도
www.99.go.kr

걷기 운동, 당신의 선택은?

걷기 운동이 확산하면서 맨발 걷기, 식전 걷기, 뒤로 걷기, 1만 보 걷기 등 다양한 방법이 등장하고 있다. 어떻게 걷든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므로 자신의 목적과 상황에 따라 선택하면 된다.

1 맨발 걷기 vs 뒤로 걷기

추운 겨울에도 맨발 걷기의 열풍이 거세다. 맨발로 걸으면 신체 하중이 발바닥에 분포한 신경 반사구, 림프 체계, 신경 말단을 자극하며 반사구 영역과 연결된 부위의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면서 운동 효과가 더 커진다. 그러나 임신부나 당뇨병이 있는 사람, 평발이거나 발에 진물이 나고 갈라지는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신발을 신는 것이 좋다.

뒤로 걷기는 체중 감소 효과를 높인다. 30분간 뒤로 걸으면 에너지 소비량과 근육 활동량이 앞으로 걸을 때보다 1.5~2배 정도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뒤로 걸을 때는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으므로 평지에서 시속 4km 정도로 느리게 걷는 것이 좋다.

2 식전 걷기 vs 식후 걷기

식전 걷기는 이미 몸에 붙어 있는 지방을 태우고, 식후 걷기는 지금 먹은 식사의 칼로리를 소비하거나 혈당을 낮추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다이어트를 원한다면 식전에, 원활한 소화와 혈당 조절을 원한다면 식후에 걷는 것이 좋다.

3 아침 걷기 vs 저녁 걷기

아침 식사 전에 걸으면 탄수화물과 지방을 태우는 데 도움이 된다. 따라서 다이어트를 기대한다면 아침에 걷는 것을 추천한다. 그러나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릴 때는 전날 발생한 미세먼지가 지표면에 가라앉아 오후나 저녁보다 더 심하니 유의해야 한다. 저녁에 걷는다면 식사 후가 좋다. 소화와 혈당 조절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또 하루의 피로를 해소해 수면의 질이 높아지고 야식의 유혹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4 실내 걷기 vs 야외 걷기

둘 다 장단점이 있다. 러닝머신은 페이스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정한 속도로 걸을 수 있고, 미세 먼지 등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반면 야외에서 걸으면 자연을 가까이함으로써 스트레스 감소, 우울감·불안감 감소에 조금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다.

5 1만 보 걷기 vs 빠르게 걷기

하루 1만 보를 걸어야 그날 섭취한 평균 열량을 모두 소진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 5,000보 이상 걸으면 조기 사망률이 낮아지고, 10분이라도 올바른 자세와 빠른 속도로 걷는 것이 운동과 건강에 더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걷기 속도는 보통 옆 사람과 대화는 할 수 있지만 노래는 부를 수 없다면 중간 속도, 대화가 불가능할 정도로 걸으면 매우 빠른 속도다. 천천히 1만 보를 걷든, 빠르게 속보로 걷든 건강 증진에는 효과가 있으므로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하도록 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걷기로 건강 증진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일주일에 5일 이상, 최소한 30분 이상 혹은 아주 빠른 속도로 15분 넘게 걸으라는 의미의 '1530 법칙'을 권장한다. 어떤 식으로 걷든 선택은 자신의 몫. 중요한 것은 꾸준히 제대로 걸어야 한다는 것이다.

해빙기라고 방심하지 마세요!

구조대원이 알려주는 해빙기 등산 시 주의점

글 이선민
사진 전재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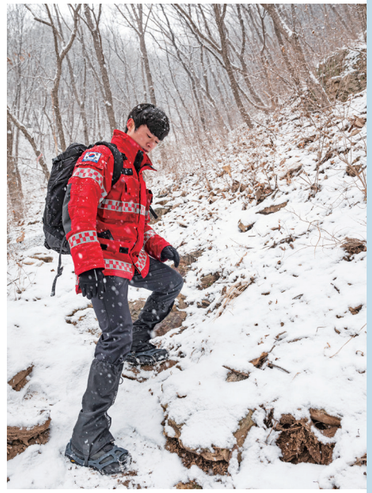
얼음이 녹는 3~4월을 해빙기라고 한다. 하지만 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춘은 거의 매해 2월 초. 이때부터 얼음이 녹기도 하지만 한겨울 못지않은 추위가 닥치기도 한다. 그래서 해빙기에 등산을 하려면 겨울철과 다름없는 준비가 필요하다. 가평소방서 이종연 소방교가 해빙기 등산 시 주의할 점을 알려줬다.

등산 전 꼭 챙겨야 할 것은요

1. 해빙기에도 바람막이, 모자, 장갑 등 겨울 등산 복장은 필수다. 두꺼운 옷보다는 얇은 옷을 여러 겹 입어 체온 변화에 따라 벗고 입는 것이 좋다. 또 땀 배출이 잘 되는 기능성 옷을 착용하는 것도 방법.
2. 등산화에 착용할 수 있는 미끄럼 방지용 아이젠, 눈이 많이 쌓인 경우를 대비해 스패츠를 준비해 등반하는 것이 좋다. 발이 젖었을 때 갈아 신을 여분의 양말과 핫팩, 등산 스틱, 따뜻한 물도 챙긴다.
3. 등산 전 반드시 날씨를 확인한다. 겨울에는 금방 어두워지기 때문에 일몰 시간을 확인해 하산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등산할 때 주의할 점은요

1. 날씨가 추우면 몸이 굳기 때문에 등반 전 스트레칭을 충분히 해 몸을 풀어주는 것이 좋다. 또 자신에게 맞는 등산 코스를 선택해 무리한 산행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 해빙기에도 눈이 많이 올 때가 있다. 눈이 쌓이면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길을 잃을 위험이 크다. 등산로 곳곳에 국가지점번호판이 설치되어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며 자신의 위치를 알아두는 것이 좋다.
3. 하산 시에는 미끄러지지 않도록 아이젠을 착용하고, 가능한 한 좁은 보폭으로 내려오는 것이 안전하다.



사고가 났을 때는요

만약 미끄러지는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서둘러 일어나려 하지 말고 자신의 상태를 먼저 살핀다. 골절 등이 의심되면 움직이지 말고 119에 신고한 후 보온 대책을 강구하며 구조를 기다리는 것이 좋다.

이종연 소방교를 소개합니다

가평소방서 119구조대 5년 차 소방공무원 이종연 소방교는 지난해 팀원 6명과 함께 '라이프 세이버' 최우수 표창을 받았다. 라이프 세이버는 위험한 재난 현장에서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사람을 구조한 소방공무원에게 수여하는 인증 제도다. 급류에 휩쓸려 고립된 3명을 안전하게 구조한 가평소방서 119구조대의 실력을 인정받은 것. 가평은 계곡과 산이 즐비해 휴가철이면 사람이 많이 찾기 때문에 그만큼 인명 구조 요청도 잦은 편이다. 상황에 따라 직접 구조하거나 헬기 이송을 하는 등 가평소방서 119구조대 대원 모두가 인명을 구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소방공무원이 되고 싶었던 당시의 초심을 잃지 않고 꾸준히 훈련하고 있는 이 소방교는 앞으로도 구조대원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메모하세요!

놓치면 아쉬운 2월의 문화생활

정리 이정은

2월에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자동차 애니메이션 뮤지컬과 청룡의 해를 맞아 용을 그린 카툰, 동물 유물 등 동물을 주제로 다양한 전시가 펼쳐진다. 주말에 가족 나들이로 즐기기 안성맞춤이다.

<2024 신년 카툰전 행복하세龍>

2024년은 갑진년, 청룡의 해다. 용은 12지신 중 유일한 상상 속 동물로, 임금님을 지칭한다. 용 중에서도 푸른빛을 띠는 청룡은 '동쪽을 지키는 수호신'이라는 뜻이 있으며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는 동물이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서는 용을 주제로 한 신년 카툰전을 연다. 2024년은 어려움을 이기고 모두 행복하자는 뜻으로 전시명을 경쾌하게 '행복하세龍'으로 지었다. 한국카툰협회를 비롯해 국내 대표 만화가와 일본·중국·대만·홍콩 작가가 참여해 총 70여 점을 전시한다.

Info

- 2023년 12월 12일~2024년 2월 29일
- 한국만화박물관 로비
- 무료(한국만화박물관 입장료 별도)
- 032-310-3090~1
- www.komacon.kr

<생생화화生生化化 '야생화'>

'경기 시각예술 성과 발표전'으로, 경기 지역을 연고로 활동하는 강상우, 구수현, 김선영, 김우경, 비고, 이수진, 조가연 등 7명의 작가의 다양한 시도와 실험을 묶어 선보인다. 시대 감각에 예민하고 발 빠르게 반응하는 작가들은 작품을 통해 사회적·환경적·기후적 위기감 등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체감한 동시대적 쟁점을 조형과 시각적 아름다움으로 전달한다.

Inf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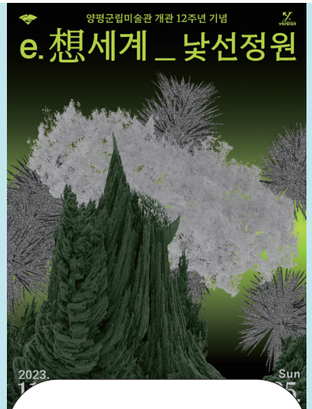
- 2023년 12월 1일~2024년 2월 25일
- 김홍도미술관
- 4,000원
- 031-481-0505
- www.ansanart.com

<꼬마버스 타요 - 용감한 구조대 레스큐 타요!>

가족 뮤지컬 〈용감한 구조대 레스큐 타요!〉가 레스큐포스팀으로 다시 돌아왔다. 응급구조센터에 초대받은 타요와 친구들, 그리고 하나씩 멋지게 등장하는 구조차. 우리도 구조대원으로 활동할 수 있을까? 타요는 멋진 구조차들이 부럽기만 하다. 그런데 마침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단다. 꼬마버스 타요의 요절 복통 구조대원들의 대소동이 노래와 춤으로 신나게 펼쳐진다.

Info

- 2월 17일~18일
-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 R석(1층) 6만 원, S석(2층) 5만 원
- 1566-6551
- www.ggac.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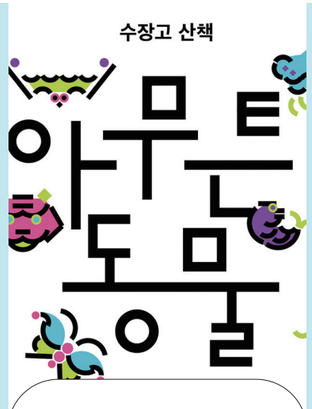


<e. 想세계_ 낯선 정원>

e. 想세계에서의 낯선 정원은 산업화, 세계화, 환경문제, 기술적 변화 등 지구에 생겨난 다양한 변화를 함축하는 다중적 의미를 갖는다. '자연의 시선', '재구성된 풍경', '이상의 숲', '낯선 정원' 등의 테마로 펼쳐지는데, 자연에 내재된 강한 생명력을 통해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사유하고, 디지털과 아날로그, 물질과 비물질같이 서로 다른 영역을 이어주는 체험을 경험하게 한다.

Info

- 2023년 11월 24일~2024년 2월 25일
- 양평군립미술관
- 성인 1,000원, 청소년 700원, 어린이 500원
- 031-775-8515
- www.ymuseum.org



<수장고 산책: 아무튼 동물>

해가 바뀔 때마다 어떤 동물의 해인지 살펴보고, 그 동물이 상징하는 것에 기대어 한 해의 복을 기원하곤 한다. 이처럼 동물이 품은 상징에는 그 시기마다 문화와 정서가 배어 있다. 이번 전시는 우리에게 익숙한 열두 가지 띠 동물뿐 아니라 수장고 곳곳에 숨어 있는 나비, 박쥐, 물고기, 용, 호랑이, 봉황, 학 등 현실이나 상상 속에 존재하는 여러 동물을 표현한 유물을 선보인다.

Info

- 2023년 12월 1일~2024년 2월 25일
- 국립민속박물관 파주 수장고
- 무료
- 031-580-5800
- www.nfm.go.kr/paju

경기문화재단·문화 기관 관람 안내

① 경기문화재단 멤버스 홈페이지(members.ggcf.kr)와 각 문화 기관 홈페이지에서 예약해주세요.

② 경기아트센터 공연 관람 전 홈페이지(ggac.co.kr)를 확인하세요.

www.99.go.kr
나의 경기도

상임위원회 소개

경기도의회의 더 많은 소식은
의회 홈페이지(www.ggc.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도민의 삶에 도움 되는 건설·교통 인프라 구축에 앞장선다

건설교통위원회는 도민의 실생활과 직결되는 사회 기반 시설과 관련된 건설·교통·철도·항만·물류 등에 대한 정책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상임위원회다. 도민의 삶에 도움 되는 의정 활동을 펼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

김종배 위원장을 비롯한 14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건설교통위원회는 건설·교통 인프라를 구축해 경기도민의 편안한 삶에 도움이 되는 의정 활동을 펼치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4차 산업시대의 교통수단 공유 서비스(MaaS), 개인형 이동 장치(PM)를 비롯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건설·교통 분야 안전 확보,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GTX(수도권 광역 급행 철도) 노선 신설 및 연계 등과 관련한 도민의 관심이 높아진 만큼 위원회 역할이 부각되고 있어 최선을 다해 의정 활동에 임하고 있다.

소관 부서는 경기도 건설국·교통국·철도항만물류국·건설본부·경기교통공사·경기평택항만공사·경기도교통연수원이며, 해당 부서와 기관이 설립 목적에 따라 제대로 운영되도록 관리·감독하고 있다.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정책 토론회 및 조례 정비

건설교통위원회는 도민의 발인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성공적 도입을 위해 2023년 3월에 열린 첫 번째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에서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다양한 방안과 의견으로 토론을 진행했다. 9월에도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발전 방안' 정책 토론회를 열어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행을 앞두고 관계자, 전문가, 업계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 반영 방안을 모색했다. 이어 11월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위원들 간 심도 있는 토론과 심사를 통해 공공관리제의 공공성 확보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한 내용으로 수정해 의결했다. 이와 함께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행을 앞두고 상대적으로 열악한 마을버스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 마을버스 운수 종사자 처우 개선 조례안'을 제정하는 등 도민의 가장 친숙한 교통수단인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에 대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쏟고 있다.

'호흡곤란 지옥철' 등 현장 중심, 발로 뛰는 의정 활동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해 4월 출퇴근 시간대 극심한 혼잡으로 '호흡곤란 지옥철' 사태를 빚고 있는 김포골드라인 현장을 전격 방문해 운영 현황과 문제점을 점검하는 등 민생 현장 중심, 발로 뛰는 의정 활동으로 주목을 받았다. 또 같은 해 2월 평택항만 관련 시설, 3월 안산 대부도 똑버스(DRT, 수요 응답형 버스) 시범 사업 현장, 7월 화성 국지도 82호선 갈천~가수 도로 확장 및 서해선 복선 전철 현장을 비롯해 11월 양주 국지도 39호선 장흥~광적 도로 확장 현장 및 교통 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 12월 경기 시흥 시화호 해양 레저 사업 현장 등에서 관계자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개선책 마련에 나서는 등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쳐왔다.

'2023 행정사무감사-2024 본예산' 심도 있는 검증 및 심의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순천·남해·여수에서 실시한 현장 정책 회의를 통해 순천만 국가정원 내 궤도 시설 설치 과정 청취, 남해대교 시찰, 여수항만공사 안내선 탑승 등을 실시했다. 또 '2023 행정사무감사 및 2024 본예산' 심의를 앞두고 소관 부서 현안 업무를 점검하고 집중 논의하여 이를 바탕으로 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에서 평택항 안내선 운영 현황 점검, 건설 공사 현장의 체계적 관리, 물류 창고 난립 및 안전사고 예방, PM 이용 안전성 확보, 도로·철도 사업 적기 추진, 교통 약자의 이동권 보장,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의 철저한 준비, 광역 교통 시설 특별 회계 부족, GTX 적정 요금, 하천 관리, 노후 교량 안전 문제, 불법 하도급 문제 등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소속 공공기관에 대한 조직 관리 및 운영 개선, 판다G버스(판교에서 타는 경기도(G)버스) 운영권 대책 등을 점검했다.

경기도 집행부와 '여야정 협치' 활성화 다짐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해 9월 경기도지사와 오찬 간담회를 갖고 확장 추경과 관련한 주요 현안 사업을 논의해 '여야정 협치'를 위한 계기를 마련했다. '도담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위원회 위원들은 추경예산과 주요 현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으며, 도 집행부와 '여야정 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발판이 되기 위해 마음을 모았다.

의회 소식

경기도의회의 더 많은 소식은
의회 홈페이지(www.ggc.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의회사무처 시무식 개최

지난 1월 2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의회사무처 시무식'이 열렸다. 김종석 의회사무처장과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2024년 갑진년을 '의정 도약과 변화의 해'로 이끌어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염 의장은 2024년을 '도약의 해'로 일컬으며 "올해는 인사권 독립과 정책 지원관 제도를 비롯해 의회의 강화된 의정 지원 체계가 안정화 단계에 올라 빛을 발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또 "의회 강화를 발판 삼아 전국 지방의회가 지표로 삼을 수준 높은 지방의회 운영의 새 장을 열게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그는 "2024년은 '변화의 해'로 올 상반기를 넘어서면 후반기 체제를 맞아 의회 구성도 변화한다"며 "올 상반기까지 전반기 2년이 튼튼한 토대가 되어 경기도의회가 큰 성장의 변화를 이루길 바란다"라는 바람을 전했다. 끝으로 염 의장은 직원 인사와 총선 등 대내외적 변화를 언급하며 의회 사무처에 흔들림 없는 의정 지원을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청렴도 향상 대책 마련 착수, 청렴도 제고를 2024년 최우선 과제로

경기도의회는 지난 1월 10일 의장단과 양당 교섭단체 대표 의원, 상임위원장단이 참여한 정담회와 의회 사무처 대책 회의를 잇따라 열고 최근 발표된 종합 청렴도 평가 결과 분석과 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종합 청렴도 평가 결과가 전국 최하위권으로 떨어진 데 대한 대응 조치로, 청렴도 향상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염 의장은 이번 정담회와 대책 회의에서 "도의회가 종합 청렴도 평가 5등급이라는 초유의 평가를 받아 1,400만 경기도민께 너무나 송구하다"며 "평가 결과는 아프지만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성찰의 기회로 삼아 새해에는 도민 눈높이에 맞게 일을 추진해나가자"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청렴도 제고를 통한 도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내부 제도 곳곳을 손질하고, 청렴 의식 강화를 위한 신규 정책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연 1회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의원 대상 청렴 교육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해마다 한 차례만 운영하던 교육을 네 차례 확대 운영하고, 의원 청렴 선포식도 개최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경기도 시군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협의회 정담회 실시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1월 11일 문화체육관광위원장실에서 경기도 장애인 체육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시군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협의회와 정담회를 실시했다. 이영봉 위원장은 "일선에서 사업을 추진하며 발생하는 애로 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고자 마련한 자리"라고 밝히고, "경기도 장애인 체육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자리"라고 강조했다. 이날 협의회는 경기도 31개 시군 장애인체육회 간 소통과 발전을 위해 시군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과 직원 대상 교육 프로그램과 워크숍에 필요한 예산 확보 등을 요청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시군 장애인체육회 직원 대상 교육 프로그램 등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히며, "효율적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시군 장애인체육회별로 다른 회계, 예산 등 규정을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위원장은 건의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체육진흥과, 경기도장애인체육회와 협의해 적극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도시환경위원회, 하천 오염수 유출 방제 복구 현장 찾아

지난 1월 16일, 도시환경위원회는 위험 물질 보관 창고 화재로 오염물질 유출 사고가 발생한 화성 소하천과 평택 관리천을 방문해 수질 오염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사고는 지난 1월 9일 화성시의 한 위험물질 보관 창고에서 발생한 화재로 유해 화학물질이 인근 하천으로 유입되어 발생했다. 현재 사고 지점으로부터 진위천 합류 지점까지 약 8km 구간에 방제 둑을 설치해 화학물질의 진위천 유입을 차단하고 있으며, 폐수 처리 차량을 이용해 오염수를 채수하고 있다. 위원회는 윤덕희 경기도 수자원본부장으로부터 하천 수질 오염 피해 현황과 복구 계획에 대해 보고받은 후, 수질 오염 방제·복구에 여념이 없는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확산 방지 대책과 함께 신속한 피해 복구를 주문했다. 특히 유영일 위원장은 "경기도의회에서도 수질 오염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하천 복구 작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수질 오염을 해소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2월의 기회

경기도민을 위한 이달의 혜택

설 선물, 풍성하고 따뜻하게 준비하세요

경기도 사회적 가치 생산품 공동 브랜드 '착착착'이 설을 맞아 선물 세트를 준비했다. '하루건강 메리넛 5종 세트', '프리미엄 기름 3종 세트', '국내산 천연벌꿀 3종 세트', '위캔우리밀쿠키' 등 다양하고 알찬 구성으로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착한 사람들이 만든 착한 상품이 착한 소비로 이어진다는 뜻의 착착착 브랜드에는 도내 장애인 기업, 사회적 경제 기업, 중증 장애인 기업, 노인 일자리 수행 기관, 여성 기업, 청년 기업 등 여러 사회적 가치 기업이 참여해 다양한 생산품을 선보이고 있다.

구입	착착착 쇼핑몰(chack3.com)
문의	**경기도주식회사** 031-5171-5339

2024년 상반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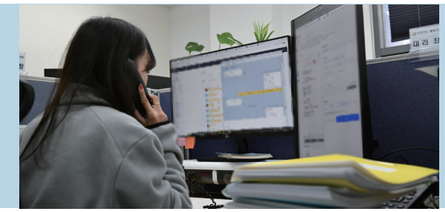
대학생의 학자금 부담 경감을 위해 대출이자를 지원해준다. 지원 대상은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한 대학(원) 재학·휴학생, 미취업 졸업·수료생으로, 지원 내용은 2010년 2학기~2023년 2학기에 대출받은 학자금(등록금, 생활비)의 2023년 하반기(7~12월) 동안 발생한 이자다. 발생한 이자 금액만큼 대출 원리금에서 상환하는 방식으로, 7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 방법	경기민원24(gg24.gg.go.kr)
신청 기간	1월 3일~2월 19일 오후 6시
문의	**경기도 콜센터** 031-120

최대 380만 원 지원하는 새일여성인턴

경기북부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경기북부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새일여성인턴제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과 참여자를 모집한다. 새일여성인턴제는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참여 기업과 미취업 여성(인턴)을 연계해 3개월간 인턴 기간을 제공하고, 정규직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새일센터에 구직 등록된 미취업 여성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참여자에게는 직장 적응을 위한 3개월간의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인턴 근무 종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6개월 이상 근속 시 60만 원의 근속장려금을 지원한다.

문의	**경기도일자리재단 북부일자리팀** 031-270-9900



불법사금융 피해 꼼짝 마! 경기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불법사금융 피해로 도움이 필요한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경기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는 피해를 입은 도민을 대상으로 채무 협상과 경찰 신고, 법적 절차 등을 지원하고 있다. 상담 과정에서 확인된 불법행위를 불법 사채업자에게 적시하고 추심 중단, 법정금리 준수 및 거래 종결을 요구하는 등 피해 상황에 직접 개입해 신속한 해결을 도모한다.

상담	경기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gfrc.gg.go.kr), 피해 상담(031-267-9396)
문의	**불법사금융피해지원팀** 031-267-9396

공공시설 자원 슬기로운 활용법, 경기공유서비스

경기공유서비스는 경기도민 누구나 공공 자원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예약할 수 있는 경기도 통합 예약 서비스다. 도와 31개 시군, 공공기관에서 도민에게 개방하고 있는 강의실, 회의실, 체육 시설 등 2,000곳 이상 다양한 공공시설을 경기공유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경기도청 구청사 내 잔디마당과 의왕시청 대회의실, 수원박물관 야외 전시장 등 공공 웨딩홀과 캠핑장, 체육 시설 등 다양한 공공시설 예약은 물론 여러 강좌, 체험 프로그램을 신청하고 물품 대여도 가능하다.

신청	경기공유서비스 홈페이지(share.gg.go.kr)
문의	**자산관리과** 031-8008-4598

복지 사각지대를 비추는 등불, 경기도 긴급복지 핫라인

위기에 처한 도민을 돕기 위해 개설한 긴급복지 핫라인은 생활고에 시달리거나, 그 이웃이 연락할 경우 제도 안내는 물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사업이다. 지난 1년간 하루 평균 8명의 도민을 돕기도 했다. 도는 긴급복지 핫라인을 더 많은 도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해 7월부터 상시 상담이 가능한 '경기복G톡(카카오톡)'과 '긴급복지 핫라인 홈페이지(www.gg.go.kr/welfarehotline)'를 추가해 상담 채널을 다양화했다.

상담 전화	**핫라인**(010-4419-7722), **경기도 콜센터**(031-120)
문의	**복지사업과** 031-8008-4309

안전예방 핫라인(010-3990-7722)

생활 주변 시설물 등 위험 요소가 확인될 경우 전문가들에게 무료 안전 점검 및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안전예방 핫라인(010-3990-7722)을 통해 도민이면 누구나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다. 점검 대상은 축대·옹벽 등 시설물 안전, 일터 안전(건설 사고 등), 생활 안전(다중·밀집 등), 재난 안전(자연, 환경 등) 등 도민이 직면한 모든 안전 위험물이다. 신청→안전특별점검단 접수→시군 담당 부서 및 전문가 합동 점검→결과 알림 순으로 처리된다.

신청 방법	전화(010-3990-7722) 또는 홈페이지(sss.gg.go.kr)
문의	**안전특별점검단** 031-8008-8484~6

도지사가 직접 답변하는 경기도민 청원

'경기도민 청원'은 경기도 주요 현안 또는 정책 등에 대해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소통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다. 의견 수렴 기간 30일 동안 1만 명 이상 동의를 받은 청원은 경기도에서 정책 반영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한 후 홈페이지에 답글 게재 또는 동영상 게시, 현장 방문 등의 방식으로 도지사가 직접 책임 있는 답변을 준다.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청원 대상은 경기도 주요 현안이나 정책이다. SNS 계정(네이버, 카카오톡)으로 인증 후 신청하면 된다.

청원 방법	경기도민 청원 홈페이지(gg.go.kr)
문의	**경기도 콜센터** 031-120

경기도일자리재단

잡아바

기회를 잡아봐

잡아바! www.JOBaba.net

경기도 취업 & 창업 정보를 한눈에!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와 함께합니다.

2024년 상반기 경기IT새일센터 과정별 교육생 모집

● 주요 내용

과정명	내용	교육 기간	접수 기간	정원
이모티콘 크리에이터 심화 과정	① 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미취업 여성 ② 교육 방식: 실시간 줌 온라인 교육 ③ 면접 일자: 2024. 2. 23.(금) 합격자 발표: 2024. 2. 26.(월) ④ 신청 방법: 잡아바 어플라이 (포트폴리오 첨부 필수)	2024. 3. 4.(월) ~ 5. 9. (목)	2024. 1. 17.(수) ~ 2. 21. (수)	20명
피그마 활용 UX/UI 디자인 포트폴리오 과정	① 대상: 주민등록상 경기도, 서울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35세 이하 미취업 여성 ② 교육 방식: 온오프 블렌디드 강의 (월 1~2회 오프라인, 그 외 온라인) ③ 교육비 지원: 월 20만 원 (80% 이상 출석 시) ④ 신청 방법: 잡아바 어플라이	2024. 3. 14.(목) ~ 6. 28. (금)	2024. 1. 22.(목) ~ 3. 11. (월)	20명
영상 편집 (모션그래픽) 제작자 과정	① 대상: 주민등록상 경기도, 서울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9세 이상 미취업 여성 ② 교육 방식: 오프라인 대면 교육 (장소: 재단 남부사업본부 교육동) ③ 신청 방법: 잡아바 어플라이	2024. 3. 21.(목) ~ 6. 14. (금)	2024. 1. 22.(월) ~ 3. 11. (월)	15명

2024년 경기북부직업교육 기초학력지도사 양성 과정

●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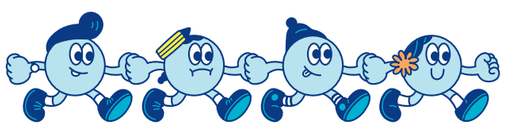
초등 기초 교과목의 학년별 내용 이해 및 지도 방법 학습을 통한 강사 역량 습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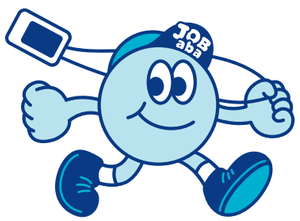
- 초등 국어, 수학 교육 프로그램 지도 방법 학습
- 수업 계획안 작성법
- 실습 및 시연 등

● 지원 혜택

- 수강료 무료
- 취업 상담사를 통한 채용 공고 안내 및 지원
- 전문 강사의 이력서 및 면접 특강
- 관련 분야 민간 자격증 취득에 용이한 교육과정 설계

교육 기간	2024. 2. 20.(화)~5. 20.(월) / 총 48일
모집 기간	2024. 1. 12(금)~2. 8.(목)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apply.jobaba.net)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대한민국이 함께 지어주세요!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새 이름'

지금 바로
응모하세요 >

깨우다! 대한민국 성장 잠재력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새 이름 대국민 공모전

- **응모 자격**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 **접수 기간** | '24. 1. 18.(목) 9시~ 2. 19.(월) 24시 / 한 달간
- **공모 주제** |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새 이름' 과 그 '의미'
- **접수 방법** |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검색 후 온라인 접수
  http://bit.ly/새이름공모전
- **시상 내역 (시상금)** | 대상 1명 (1천만원), 우수상 2명 (각 1백만원), 장려상 7명 (각 50만원)
- **발 표 일** | '24. 4. 26.(금) 경기도 공식 홈페이지
- **문 의 처** | 031-120 (경기도 콜센터)

〈나의 경기도〉를 읽고

건강 경기

독감 증상이 고열, 두통, 관절통, 근육통, 기침과 함께 심한 무기력감과 급성간염을 동반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 인플루엔자 백신을 꼭 맞아 예방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다녀온 경기상상캠퍼스가 표지로 나와 더 반가웠고, 한 번 더 가보고 싶어졌습니다.

손영선

경기문화예술인

유쾌한 캐리커처 '니 얼굴' 작가 정은혜 님이 나와 반가웠어요. TV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에 출연해 인기가 많았는데, 그 후 책도 보고 강연도 들으며 작가님의 매력에 푹 빠졌지요. 희망을 전하는 작가님을 늘 응원합니다.

김수미

로컬 in 경기

'한탄강 따라 힐링과 치유, 포천 로컬 여행'에 푹 빠졌습니다. 문화와 예술을 교육에 접목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마을 공동체 '물듦'. 정에 물들고, 예술에 물드는 '물듦'을 통해 나의 메마른 감정도 그 정에, 그 예술에 푹 물들고 싶어집니다.

이홍섭

기타 당첨자 임창규 010–XXXX–7801 **남일수** 010–XXXX–7394

내가 그리는 경기도 당첨자

김영주

박경숙

지홍근

기타 당첨자
엄세현 010–XXXX–2725
강윤재 010–XXXX–7175

경기도 초성 퀴즈 당첨자

이순옥 010–XXXX–8646
권윤주 010–XXXX–1575
강미숙 010–XXXX–2047
송현자 010–XXXX–7757
이상우 010–XXXX–7447

정기 구독 신청 안내

경기도에서 발행하는
〈나의 경기도〉는 무료로
배부되는 월간 소식지입니다.
정기 구독을 신청하시면
다음 호부터 발송해드리겠습니다.

구독 신청
www.gg.go.kr/myggd

구독 취소, 주소지 변경
www.gg.go.kr/myggd

문의 031-8008-2827
magazine@gg.go.kr

〈나의 경기도〉 이벤트에 참여하세요!

이벤트 1 **독자 소감 보내기**

참여 방법 〈나의 경기도〉를 읽은 소감을 성명, 연락처와 함께 이메일(magazine@gg.go.kr)로 보낸다.
참여 기간 2월 20일까지
당첨 선물 커피 기프티콘 1만 원 상당

이벤트 2 **내가 그리는 경기도**

참여 방법 **1** 63페이지의 그림을 예쁘게 색칠해 경기도 풍경을 완성한다.
2 다음 방법 중 한 가지를 택해 완성한 그림을 보낸다.
– 개인 SNS에 완성한 그림을 올린 뒤 '#나의 경기도' 해시태그하기
– 색칠한 그림을 찍어 이메일(magazine@gg.go.kr, 선물받을 전화번호 기재)로 보내기
참여 기간 2월 20일까지
당첨 선물 상품권 1만 원 상당

이벤트 3 **경기도 초성 퀴즈**

ㅇㄱㅌㅌ

힌트 경기도는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ㅁㅁㅁㅁ위원회'를 지난해 6월 발족했다. 도민의 목소리 '톡(talk)'을 담아 '톡'하고 나온 인구문제 해결책을 정책화하고자 하는 도민 참여형 위원회다.
※ '기회의 경기' 칼럼을 참고하세요

참여 방법 오른쪽 QR코드를 스캔하면 응모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참여 기간 2월 20일까지
당첨 선물 상품권 1만 원 상당

내가 그리는 경기도

이번 호 표지는

하수처리 공간이 복합 문화 공간으로
맑은물상상누리

시흥물환경센터 내에 있는 맑은물상상누리는 원래 하수처리를 위해 사용하던 시설이었다. 그중 사용하지 않는 곳을 누구나 이용 가능한 복합 문화 공간으로 조성했다. 이전 모습을 볼 수 있는 '비전타워', 하수처리에 대해 재미있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배울 수 있는 '한 방울의 상상' 전시관, 롤링 볼을 체험하는 놀이통 등 특색 있는 공간을 만날 수 있다.

주소 경기도 시흥시 공단2대로 14
문의 031–310–3147

나의 경기도 웹진

경기도 홈페이지

경기도 유튜브

보너스 게임!
다른 그림 다섯 곳을 찾아보세요.